

보건복지부, 내년 7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실시 발표 치과기공료 직접 수령해야

내년 7월 완전틀니 보험 급여화 실시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09년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우선 보험적용토록 하는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되며 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95만원, 부분틀니는 지대치 2개 기준으로 164만원을 적용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잠정 추계치로서 내년 상반기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노인틀니 보험적용에 약 3천2백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요재정은 보험료를 인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은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5년간 1회 적용을 목표로 2011년까지 제도 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 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권 진행사항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틀니 의료보험 적용을 공약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부 100대 과제로 '틀니 의료보험 적용'을 선정했다. 노무현 정권 출범시에도 노인틀니 급여화가 선거공약에 포함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중

※ 3면에 계속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완전틀니에 한하여 노인틀니 보험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전체 안이 나온 만큼 치과기공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치과기공소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기공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만약 보험급여를 직접 수령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틀니 보험급여시 기공료 부분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협회가 준비해온 사항과 정치권 상황,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주요기사 목차 -

- 틀니기공 원가 정부에서 산출 _05
- 양명생 교수 "노인틀니 보험화 성공하려면 치과기공소를 요양기관으로 인정해야" _06
- '3년마다 치과기공사면허 신고' _11
- 전국대표자회 명칭 '전국경영자회'로 변경 결의 _14
- 대한치과기공학회 총회 _17
-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 및 문화의 밤 _18
- 2013년 제17차 아태회의 한국에서 개최 _26
- 재선임된 김영곤 아태연맹회장 _26
- 시도회총회 _31~37
- 분과학회 학술집담회 및 총회 _40~41
- 치기공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실태 _52~53
- 학술 _54~57

헤라우스 덴탈코리아(주) 070-7093-0702 www.heraeus-dental.kr

Heraeus
Made in Germany

New 세라믹보다 질기고, 강한 인레이/온레이 전용컴포지트

signum[®]Ceramis (시그넘세라미스)

- 자연치와 변형 성질을 완벽히 일치-Stress최소화
- 높은 굴곡강도-에나멜50MPa,도재75MPa시그넘세라미스125MPa
- 탁월한 충격저항도-외부의 극대 하중에서 견딤 (세라믹1.5, 콤포지트2.7시그넘세라미스 4 KJ/M²)
- 높은탄성계수-오랜 내구성
- 뛰어난 심미성-도재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움
- 단90초 최종충합-빠른 작업시간

판매원

서울.경기대리점 (주)피디치과상사1544-2889/ 부산.경남대리점 미주덴탈(051)862-6906 /전라.광주대리점 (주)디맥스인터내셔널(02)830-7360

하나로 틀니의 보험 혜택을 꼽았을 정도로 '노인틀니 보험화' 논의는 정계의 이슈가 되어 왔다.

18대 국회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노인틀니를 보험화하려는 법안은 2008년 5월 3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9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총 9건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이며 이들 법안에는 기공료 부분을 치과기공소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노인틀니 보험화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노인틀니 보험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 노인틀니 보험화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돼 있을 뿐 아니라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 참여도가 높은 노인층 표심잡기를 위해 노인틀니 급여화가 정치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19대 국회가 2012년 6월 개원하면 6개월후에는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노인틀니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본인부담율도 줄이는 공약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노인틀니 급여 적용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정책이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로서는 공약 완성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23대 집행부부터 보험이사 신설, 준비에 들어가

그동안 치기협은 노인틀니 급여화 실시를 위해 틀니 제작의 주체로 치과기공사의 대표 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참여시켜야 하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리고 노인틀니 보험화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보험재정 및 예산의 이유로 미뤄지고 있지만 틀니 보험화시 치과기공요금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23대 집행부(회장 송준관)들어 치과기공 보험수가 연구 조사 업무를 담당할 보험이사를 신설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노인틀니 보험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틀니보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7월 치과기공사 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노인틀니 특별위원회는 최종의 고문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고훈 전국대표자회장, 간사는 김정민 협회 보험이사가 맡았다.

2010년 10월 노인틀니 특별위원회에서는 첫 활동으로 복지부로부터 '75세 이상 2012년 노인틀니 보

험적용'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아 2009년 12월부터 노인틀니 수가 설정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하여 치과의사는 진료를,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을 제

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노인틀니 보험화시 틀니 제작의 주체로 치과기공사의 대표 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참여시켜야 하며 '노인틀니 기공료 원가조사 연구' 자료를 틀니제작 단가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노인틀니 보험화시 치과기공사가 참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홍보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 '2012년 노인틀니보험 실시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역할 및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 양명생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선정되어 2010년 11월 협회 사무국에서 연구용역 계약 체결(연구기간: 2010. 11. 10~ 2011. 3. 31 5개월)을 했다.

심평원 치과기공소 실사

24대 집행부(회장 손영석) 들어서는 노인틀니 특별위원회 위원이 재구성된 후 첫 회의를 열고 3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 분야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새로 재구성된 노인틀니보험위원회는 최종의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고훈 전국대표자회장이 선임됐다. 간사는 김정민 협회 보험이사가 선임됐으며 위원은 문제혁 정책자문위원, 이철후 전국대표자회 정책위원, 조규재 협회 총무이사, 최병진 협회 기획이사, 김희운 협회 기공이사, 구기태 협회 법제이사, 남상용 협회 교육이사가 선임됐다.

정부가 심평원에 위탁한 '노인틀니보험급여 제작 원가분석 및 보험급여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에 정부에서 치과기공료 제작원가를 산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심평원 관계자가 치과기공소를 방문하여 수차례에 걸쳐 틀니 제작과정을 실사하고 치기협을 방문하여 노인틀니 특별위원회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협회는 기공행위 분류 체계 개발 자료를 만들었으며 심평원은 1차 관행수가, 2차 행위분류 수가 설문지를 전국 대표자 회원에게 발송했다.

2011년 5월 심평원을 방문하여 강윤구 심평원 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영석 협회장은 노인틀니 보험화시 치과의사를 통해 기공료가 치과기공소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제값이 전달될 수 없어 기공물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환자들로부터 정부가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기공소가 기공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인틀니 특별위원회 최종의 위원장과 고훈 부위원장(대표자회장), 김정민 간사(보험이사)가 함께 배석했다.



심평원 원장과 간담회

레진상 전체틀니 원가 230,715원

이같은 협회의 노력은 심평원에서 발표한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1차 보고서에 치과의사들의 영역인 진료비와 치과기공소의 영역인 치과기공료를 분리시킨 기공수가의 별도 산정이 언급되는 성과를 얻었고 2차 보고서에서는 레진상 전체틀니 원가 230,715원, 금속상 전체틀니 원가 312,473원으로 정부가 치과기공요금의 원가를 산출하여 정부고시하기로 정한 첫번째 사례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치과기공소가 요양기관이 되어야만 국가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양명생, 양동현, 변재환) 논문이 완성됨에 따라 손영석 협회장과 구기태 법제이사, 양명생 교수가 관련 부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법안담당자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해 나갔다.

노인틀니보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치과기공사가 참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노인틀니 정책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해 나갔다.

'기공료 직접 수령'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마련

4월부터는 노인틀니 급여화시 치과기공료를 치과기공소에서 직접 수령하기 위해 치과기공소가 요양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연구에 들어갔다.

8월 기공료 직접 수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발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좌관, 법안담당 비서관 등에게 이를 설명하며 지지를 얻어냈다.

내부적으로는 협회임원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으며 전국대표자회에서는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비하여 권역별 기공수가표를 마련해 나갔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완전틀니에 한하여 노인틀니 보험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틀니의 경우 치과기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철보험급여를 앞서 시행한 일본은 간접수령방식을 채택하여 치과기공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50% 가까운 치과기공대학의 폐교 및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일본 치과기공사협회 관계자들은 일본의 기공 현



노인틀니보험 실시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역할 및 참여방안 연구용역 체결

실을 개탄하며 “면허증 반납운동을 벌여서라도 기공료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만큼 치기협 뿐 아니라 전 회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치과기공사 대표가 참여해야 하고 기공요금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기공소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공료 직접 수취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노인 틀니수가와 급여수준, 관리체계, 사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노인틀니급여 방안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18대 국회에서 치기협에서 준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치과기공소에서 기공료 부분을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만 남은 셈이다. 심평원에서 치과기공물 제작 행위별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한 전체틀니 원가는 정부에서 고시하기로 정한 것임으로 우리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하여 고사위기에 있는 치과기공계를 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는 2012년도 보장성 강화의 핵심 사업으로, 복지부가 준비했던 만큼 이번이 없는 한 내년 시행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실시 당시 치과의사를 통해 치과기공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재 큰 타격을 받아 침체일로에 있는 일본 치과기공계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공료 직접 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방식대로 치과의사에게 기공료를 받아야 한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공요금이 회원 상호간 경쟁의 무기로 전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신과 혼란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갈 것이다.

회원 모두가 나서야 할 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을 모법에 삽입시키는 법안을 상정시켜준 양승조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1개의 법안을 상정해서 우리의 법안 1개만이 통과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보험급여에 대해 치협과 협의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해도 보건복지부와와의 협의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의사협회 또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치과기공소가 의사들만의 고유영역이라하는 요양기관으로 되는 것은 험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치

과기공사의 권리를 찾는데 전 회원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보철보험 기공물을 제작하는 주체인 치과기공소 대표자나 치과기공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정작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손영석 협회장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협회가 참여하고 기공요금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정부, 치협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때는 대국민 호소 등 여러 방법을 선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실패한 사례를 보고난 후에도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기공료의 경우 공단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최충의 위원장은 “치과기공소가 반드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치과의사들로부터 기공료를 받는다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수직적 관계는 오랜 세월, 아니 영원히 탈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치과기공계 파이를 넓히는 기회로 삼자. 이는 모든 회원이 단합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자 장수경

〈 외국의 틀니 보험화 사례 〉

■ 일본

20여년전 보철보험시행제도가 마련될 때 진료비와 기공수가의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의료기관에서 치과기공소에 기공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기공료가 전체 진료수가에 포함하여 치과에서 지급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적정가는 고사하고 치과기공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많은 폐단을 초래하며 치과기공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같은 치과기공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치과기공대학 수도 1998년 73개교였던 것이 2008년에는 64개교로 10년 사이 9개교가 폐교했다. 치과기공사의 1/3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20대의 젊은 치과기공사들의 이직률이 높으며 새로 치과기공사를 희망하는 학생 수도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 해마다 치과기공사수가 감소되고 있다.

일본의 치과보철보험은 포괄수가로 집행되며 치과기공요금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치과보철은 가철성 전체틀니만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다. 치과의사나 clinical dental technician에 의해 상악골이나 하악골에 가철성 전체틀니를 제조 및 장착했을 때에는 청구된 비용의 75%가 상환되고 25%는 본인이

부담한다.

치열교정사가 별도로 존재하며 보통 의치의 제작은 치과의사의 의뢰를 통해 치과기공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덴처리스트가 총의치에 대해서 치과의사의 의뢰 없이 의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분의치, 보철물, 치근에 대한 캐노피 프레임 보철이나 임플란트도 제작할 수 있지만 이들은 치과의사나 치과 임플란트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에 수행할 수 있다. 덴처리스트는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네덜란드는 1996년 보건의료질관리법을 도입하면서 체계적인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CVZ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들이 의치를 제작할 때 필요한 행위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의치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치과의사, 관련 전문가, 치과기공사 등 3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 독일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치과의원에서 치기공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을 치과기공소에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치기공 서비스의 수가는 공적보험자의 대표기관인 ‘GKV-중앙협회’와 기공소 대표기관인 ‘독일치

과기술협회’의 협상을 통해 ‘보험적용 치기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 단위의 목록’과 ‘치기공 서비스에 대한 전국 평균가격’이 결정된다. 이후에 ‘지역 치과기술협회’와 ‘지역 건강보험위원회’ 간 협상을 통해 각 주 단위에서의 치과 표준진료에 대한 최대 가격 결정이 결정된다. 이를 통해 결정된 기공료에는 재료 및 금속 비용과 진료실 소모품, 운송비가 포함된다.

〈독일의 치과 보철서비스에 대한 진료보상 체계 예시 (상악 무치악 사례, 2010년 기준)〉

(단위:유로)

치과 진료		치기공		의사 수가 (fee)	기공료 (재료 포함)
표준 수가 코드	진료 과정	수가 코드	진료 과정		
7b 97a 87a 98b 89	진단모형(계획) 상악 총의치 개별인상채득 상악 기능 인상채득 교합간섭제거	0010 0120 0201 0211 0212 0213 0215 0220 3010 3020 3610 3620 3821 3822 9330	모형 평균치 교합기 사전교합인기를 위한 베이스 개인트레이 기능인상을 위한 트레이 교합인기를 위한 베이스 배열을 위한 베이스 교합제 배열 기본 단위 치아당 왁스 배열 완성 기본 단위 치아당 완성 연성레진 특수레진 운송비	236.09	298.49
			재료 치아 진료실 소모품		

※ 자료제공 : 심평원

치과기보 학술 원고 · 임상 원고 모집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치과기보에 게재할

학술원고 및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기간 : 매월 20일까지
- 제출 자격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원
- 접수처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18번지 1층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02-2253-2800
e-mail : kdtech@chol.com
- 원고접수내용 : 출력원고 1부와 원고의 내용이 담긴 디스크 1장, 소속분과학회(분과학회제출인 경우에 한함) 및 교신저자 표기

- 소속분과학회 : 분과학회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우편번호
- 교신저자 :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e-mail, 우편번호
- 원고의 종류 : 원저, 증례보고, 종설, 기타
- 기고규정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참조

※ 원고의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 후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틀니기공 원가 정부에서 산출

레진상 전체틀니 23만 715원, 금속상 전체틀니 31만 2,473원

“틀니 행위료와 기공료 분리” 바람직, 총진료비에 기공료 명시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보고서

보건복지부가 내년 노인틀니 보험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운구)에 용역 의뢰한 ‘75세 이상 2012년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에서 산출한 틀니기공 원가 결정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기공요금 원가이다.

심평원은 “틀니진료 과정에서 치과기공소에서 시행하는 기공행위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고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틀니기공 원가를 조사해 틀니기공수가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치기협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100개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천개의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관행수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치기협에서 개발한 틀니기공 행위분류 및 소요자원 목록을 중심으로 치기협 임원진 3인의 자문을 통해 개발된 조사지를 치과기공소에 우편발송하고 회송받는 방식과 치과기공소를 방문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공 과정별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표1 전체틀니 유형별 기공원가 분석 결과 (단위: 원)

전체틀니 유형	직접비				간접비	제작 원가	재제작 비율 (9.8%)	전체 비용
	인건비	재료	장비	기구				
레진상	93,616	74,678	9,858	5,036	26,934	210,123	20,592	230,715
금속상	130,770	109,075	10,547	5,416	28,776	284,584	27,889	312,473

표2 치과기공소 노인틀니 보험적용 의견

임시 덴처에 대한 비용도 논의 필요
치기공료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양질의 틀니 제작을 위해서, 덤핑 할인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치과기공료의 현실화
현재의 기공료보다 20%정도 인상 필요
기공요금은 행위별수가 개념으로 정리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치과기공소의 의료기관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재제작(리메이크)문제와 이에 관련된 제작 금액등도 공단과 기공소 간에 협의 필요
기공사 의치사제도 도입

보고서는 먼저 분석 대상을 치과의료기관에서 기공을 의뢰받은 이후부터 최종 납품하기 까지를 틀니를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로 하고 원가구성 항목은 직접비로 인건비, 기공 재료비, 기공 장비 및 기구 비용, 간접비로 간접 인건비, 기공 소모품 비용, 관리 운영비, 건물 및 비품 비용 등으로 했다.

틀니 유형별 기공원가 분석결과 전체틀니(레진상 기준): 전체 230,715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틀니(금속상 기준): 전체 312,473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기공원가 등을 감안하여 전체 틀니는 최소 90만9978원에서 최대 94만6536원으로 틀니 수가를 제시하면서 레진상 전체틀니는 의원 현 관행수가의 약 67~70% 수준이라고 밝혔다.

치과 의료이용률(67.4%)을 반영한 전체틀니 최소 수요량은 162,450약, 최대 수요량 196,250약으로 추계했다.

심평원은 보고서를 통해 틀니 진료는 치과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틀니 기공행위는 주로 치과기공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료와 기공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여 시행시 기공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총진료비에 대한 기공료의 비율(%) 또는 가격으로의 방법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인틀니 급여 적용시 치과보철물의 제작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틀니를 포함한 치과기공물 제조업체 및 수입(유통)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2012년도 틀니 수가 산정은 2010년도



심평원 연구원과 간담회

기준 틀니 진료원가, 기공원가와 지대치가격(부분틀니의 경우)을 합한 가격에 적정이윤(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2011년 기준 4.53%) 반영하고, 수가 인상률을 적용(2006~2011년 연평균 증가율 2.92%)하여 산출하였다. 기공료는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적용했으며 틀니기공 관행수가 조사는 치과기공소의 일반적 특성, 총 수익에서 틀니 기공이 차지하는 비중, 틀니 형태별 제작 악수, 틀니기공행위 관행수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지난 2009년 11월부터 실시됐다. 1차 연구는 해외사례 비교, 2차 연구는 △노인틀니 수요추정, 시술행위 분류 및 정의 등 선행연구 고찰 △국내 노인틀니 수요현황 분석(구강보건상태·노인틀니 수요 및 이용률 파악) △노인틀니 비용조사 및 수가 설정(치과 의료기관·치과기공소 대상 비용 조사)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급여범위 및 기준설정, 평가 및 관리방안) △노인틀니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추계(적정수가 산정 및 소요재정 추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노인회·보철학회·건치)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노인틀니 보험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공재료 전문쇼핑몰

덴탈쇼핑

경북 구미시 원평동 937-64

2012년 달력증정 이벤트!

가입즉시 드리는 마일리지 3000점
푸짐한 구매 금액별 사은품
샘플증정, 당일배송

TEL. 080-211-2889 054-461-2889

www.2889.co.kr

보험전문가 양명생 교수

“노인틀니 보험화 성공하려면 치과기공소를 요양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방안 연구-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화가 발표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한 양명생 교수가 치과기공사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 틀니가격(틀니제작 기공료와 재료대)을 치과의사(치과병·의원)을 경유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직접 수령·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노인틀니 보험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발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명생 보건학 박사(전 식약청장)이 발표한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방안 연구’ 논문은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인틀니를 국가지원으로 보급하는데 그 성패는 노인틀니 보험급여와 기공물 제작 수가기준의 적정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치과기공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명생 교수는 논문을 통해 치과기공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틀니기공물 제작수가(틀니수가)를 치과의사에게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포괄수가를 치과의사 진료분과 치과기공사 제작분을 분리하고 틀니수가중 기공물 제작비용은 치과의사를 경유하지 않고 치과기공사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치과기공물의 제작은 일반 공산품의 제작이나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제품화한 것이 아니고 특정 환자를 위해 맞춤제작을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보험급여체계를 직능에 대한 역할과 보상문제를 제대로 수립·시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 두가지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명생 교수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독립된 사업장인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데도 마치 주종관계 또는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체 관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의료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되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시 이해당사자인 치과기공사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명생 교수는 치과기공소는 치과병·의원과 같이 틀니장착대상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어 50%로 책정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을 받을 기회와 수단이 없는데도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에 자율적으로 정산하라고 하면 약자인 치과기공사가 강자인 치과의사로부터 환급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시장에 맡겨 놓았지만 보험급여제도권 안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 보험급여행정 절차로 정



양명생 교수가 협회 임원들에게 노인틀니 보험화시 치과기공사가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

노인틀니보험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치과기공소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치과기공수가 항목분류·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점수당 단가계약에 치과기공사 협회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틀니제작 기공수가(요양급여비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기공소가 직접 수령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4. 노인틀니보험급여의 성패는 틀니기공물 제작수가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달려 있다.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50%는 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로부터 다른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치과병·의원에서 틀니기공물 제작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다른 진료비와 같이 받도록 하고 그 치과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이미 치과요양기관이 받은 본인 일부부담금(50%)을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요양급여비 지급대상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이 부담할 금액(50%)과 합하여 전액(100%)을 치과기공소에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국 사례를 들어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틀니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치과기공소를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치과기공소단체의 대표자를 이 사업의 카운터파트너로 포용해야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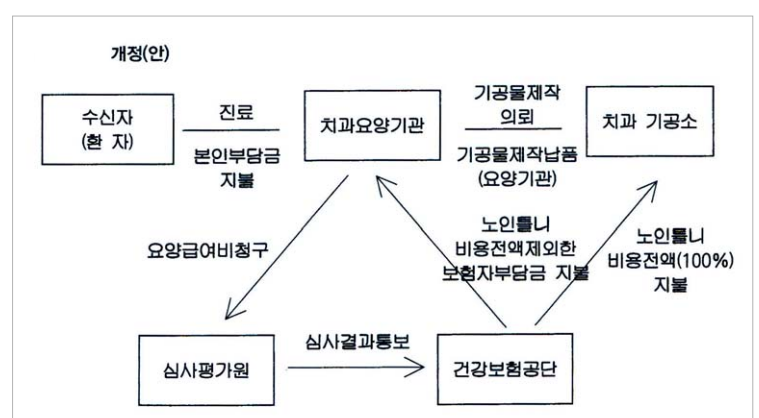
밝혔다.

한편 본 논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권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제반 사안으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용역을 맡아 진행되었다.

논문을 집필한 양명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보건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치과기공사를 배제한 채 ‘노인틀니’ 즉 의치보험급여를 치과의사측인 ‘치과의사협회’만을 협상 및 협의상대로 하여 의치수가(기술료와 재료대)의 항목명칭 및 분류,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및 환산지수, 보험급여 범위, 보험급여비용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을 결정한다면 치과기공사 단체로부터 크게 저항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산재보험보철과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마저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서도 치과기공사는 완전히 배제되어 왔다고 밝혔다.

본 논문을 집필한 양명생 교수는 복지부에서 33년간 근무하면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경인지방 식약청장, 부산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직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상근연구위원, (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비상근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보험전문가이다.

〈표〉 치과요양급여비 청구·수령 절차도



‘3년마다 치과기공사면허 신고’

체계적인 인력수급, 교육환경 평가, 보수교육 내실화 기대

의료기사법 개정 공포

2012년부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치과기공사(의료기사)들은 2014년 일제신고시 반려될 수 있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치과기공사등의 의료기사는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신고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돼 재석 194명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상신고 업무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의료기사 중앙회가 위임받아 실시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은 2014년 11월부터이다.

치기협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면허신고제 도입 강력 추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중 치기협과 안경사협회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병·의원에 근무하여 실태 파악이 용이한 타 의료기사와 달리 치과기공사와 안경사는 단독 개설이 가능한 반면 협회 미가입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인 인력수급이 불가능하고 보수교육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손영석 협회장은 의료기사 단체장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들을 방문하여 의료인에 대해 면허신고제가 통과된 것과 같이 의료기사등의 면허재신고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다.

그동안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해왔다.

2011년 1월 들어서는 의료기사 8개 단체, 관련 학회,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의료기사 면허재등록 관련 T/F팀 회의를 열어 의료기사 면허체계 개선을 위한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이애주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안 심의시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재등록제도가 통과되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4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이애주 의

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단체 연합회와 정부의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노영민 의원의 발의안(2009년 7월 8일 발의)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기충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심의가 보류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4월 25일 이애주 의원실, 보건복지부, 의기충 8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 법률 일부개정안(면허신고제)을 수정했다.

6월 21일 의료기사 등의 면허재신고제를 도입하고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가 소비자들에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안경사가 소비자들에게 미용렌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의료행위라는 안과의사의 항의로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의 심의가 지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2009년 7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과 4월 정부와 이재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추가 회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2일 공포됐다.

의기충연합회평가원 설립중

그 다음날인 6월 22일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기충연합회평가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평가원 설립자금으로 각 단체에서 5천만원씩을 거둬 평가원을 설립중이다.

평가원에서는 공정하고 타당성이 보장된 전국 치기공과 대학 평가, 실습 시설을 비롯한 교육환경 평가, 보수교육의 질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수교육 이수자들의 형평성 논란 잠재울 수 있게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질 관리의 수준을 강화하고 보수교육 등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사에 대해 면허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질 관리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면허 갱신제도의 도입

Build UP

전문기공소 [빌트치과기공소]

일양이 많은 기공소, 신경 써야 할 거래처의 shade, 소규모 기공소, 기공실, 지방의 치과기공소 어디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공소입니다. 심미 보철이 점점 요구되는 시대에 완성도 높은 porcelain을 제작 하시는 데 멋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염미옥

고대병설보건대학 졸업/단국대 구강보건학 석사 졸업
다수의 세미나 수료
임상경력 17년/현 빌트 치과기공소 소장

02-2631-2804 010-8962-5108 서울영등포구당산6가 237-363층

원리를 알면,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유를 알면
build up 쉬워집니다!

2주과정, 한달 과정 1:1 세미나
토요일 6시간 build up 1:1 세미나

- *다색 축성, 효율적으로 shade를 낼수 있는 방법, 지르코니아 build up, glazing까지
- *2~3가지 종류의 다른 powder를 배울 수 있는 기회!
- *1:1이라 내용은 각 개인의 수준에 맞춰 한단계 up시키고, 초기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 졸업하시고 속성으로 build up을 배우고 싶으신 분
- 새로이 build up으로 전환하시는 분
- 전치를 배울 기회가 없는 분 등

▶ 시간: 월-금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 진행됩니다.

▶ 장소: 2호선 당산역 빌트 치과기공소

Build UP

빌드업 전문 기공소

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그동안 행정력 부재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보수교육 이수자들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미흡함은 물론,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실태파악 자료가 전무하여 보수교육 등 최소한의 관리요건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자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정책 마련이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정부 정책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은 1973년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내실화로 이어져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는 보수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진다.

치기협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사단체의 2009년도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사 등의 면허등록자 21만 9,870명중 11만 1,632명이 소재 미파악, 보수교육 대상자 10만 8,238명중 절반이 넘는 5만 4,255명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보수교육은 의료기사법에 의거 치기협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협회 미신고 회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가 실제로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치과기공사 관리체계에서는 오히려 협회에 가입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고 소재 미파악자들에게는 협회를 통한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치과병·의원 및 치과기공소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됨으로 이들 보수교육 미이수자 가운데 누가 교육 대상이고 누가 면제 대상자인지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치과

기공사가 자신의 취업실태를 신고하게 됨으로써 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됨으로 보수교육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절반 소재 파악 안돼

치과기공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협회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치기협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모순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면허를 발급받은 치과기공사는 2만9천여명이지만 치기협에 등록된 회원은 1만3천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6천여명의 취업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취업실태 신고를 반려했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취업실태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는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치과기공사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행방불명 치과기공사 대부분이 신상신고와 보수교육에 동참하게 되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 의무가 강제성을 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게 된 것이다.

한편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를 골자로한 이 법안은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손영석 협회장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치과기공사 수의 집계가 가능해 치과기공사의 수요 공급을 예측, 치과기공사의 인력 수급문제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도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보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또한 손영석 협회장은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자 장수경

금 도난 또는 분실 주의 안내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은 아래 도난사고 예방요령을 참고하여 치과기공소에서 보관중인 기공용 금, 금가루, 골드크라운 등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난사고 예방요령 -

1. 기공용 금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사용후 잠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금등의 보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최소의 인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3.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의 비밀번호나 열쇠등은 분실 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경보장치등 자체 방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2011년 신흥대학 치기공과 동문회 송년 총회 개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동문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 신흥대학 치기공과 송년 총회 및 신입 동문 환영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_ 2011년 12월 19일(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장 소 _ 31빌딩 스카이 라운지(종로구 관철동10-2) TEL.02-739-4618~9

신흥대학치기공과 동문회장 강 종 원

※신흥대학 치기공과 모든 동문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시어 화합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표자회 명칭 ‘전국경영자회’로 변경 결의

제15차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 명칭을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전국대표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하반기 2번 공청회를 열어 통과된 내용을 협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전국대표자회 정기대의원총회(총원 142명중 참석 97명, 위임 10명)에서는 명칭을 ‘경영자회’로 변경하고 정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총회 시기를 현행 11월에서 3월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일부 치재업체의 캐드캠 밀링센터 대응 등 현안들을 논의했다.

고훈 전국대표자회장은 “지부 및 지부치과의사회와 만났을때 치과기공소를 경영하는 소장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치과기공소를 대표한다는 의미만을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치과기공계를 이끌고 나가는 인식이 약했다”며 “치과기공사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전문적인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그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올렸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경영자회’로 명칭 변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칙 개정안에서는 ‘개설인정서’를 ‘개설등록증’으로 수정했으며 정관 개정으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표자회 정기대의원총회도 현행 11월에서 3월로 변경기로 하는 회칙을 개정하고 차기 총회는 오는 2013년 3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대표자회와 협회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대표자회 총회를 협회 총회 뒤인 5월에 개최하자는 이도찬 대의원의 제안에 고훈 대표자회장은 4월 총회에서 탄생된 신입 집행부가 5월 1일부터 회무를 시작하는데 대표자회 총회를 5월에 개최하면 4명(전국대표자회장, 기공이사, 기자재이사, 보험이사)이 공석인 상태로 회무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제5장(지부회) 제26조(구성)’ 중 “지부회 대표자 세칙은 본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진행됐다.

고훈 대표자회장은 “대표자회 회칙에는 지부회가 세칙을 대표자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돼 있으나, 협회 각 시도지부에서는 각 지부의 인준을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다”며 “대표자회 인준을 받을 것인지, 각 지부의 인준을 받을 것인지 혼란이 없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훈 대표자회장은 또 “오늘 의결이 안된다면 계속적으로 지부회, 지부대표자회 갈등사항이 많다”며 “내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 지부회, 지부경영자회가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며 “‘단일화’ 부분으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장시간 논의 끝에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의안이 채택되어 정책위원, 16개 시도지부장, 16개 시도대표자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대표자회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 2012년 전반기, 하반기 2번의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안을 협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치과기공계의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치협이 최근 불법 네트

워크 치과 적결과 관련한 성금을 통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처럼 대표자회도 특수사업비(1억원 규모)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각 시도지부 대표자회와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고 2012년 사업 및 수입·지출 예산안 2억6천여만원을 승인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재 식약청에서 니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코발트를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알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고훈 전국대표자회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에 니켈 사용이 금지되고 크롬코발트 사용을 식약청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표자회에서는 논베릴륨 메탈을 시도회장과 상의하여 공동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 명의를 대여하여 재료상이 밀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고훈 대표자회장은 “실제 기공물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치과의사, 치과기공사가 아닌 센터직원이나 치과위생사가 캐드 디자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치과기공사 업무영역이 법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제보해주면 진상 조사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도찬 대의원은 많은 회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업권을 해치고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며 치과기공사의 권익을 저해하는 회원을 제재해야 하며 모든 언론을 통해 경영자회를 구심점으로 기공요금 현실화에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의 건에서는 ‘서울 TDS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에 있으며 해외 기공물만 취급한다고 설립된 TDS가 현재 지사 형태로 대구, 인천, 김해지역에 생겨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하여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대의원의 제안 설명에 고훈 전국대표자회장은 “현행법상 외국 기공물에 한하여 대단위 체인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자회에서 강력히 막아야 된다”며 “국민 수가 감소되어 기공물 수요는 한계가 있는데도 기공소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기공계가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공물이 국내 치과기공소에서 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회무보고, 예산안을 10일전에 대의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했으며 원가조사 미납금, 강원회 과년도 회비 미납분, 부산 공정위 과징금 등 3가지를 결손처리 했다.

한편 개회식에서 신재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훈 전국대표자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 임원이 대표자의 업권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 대표자 여러분께서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고훈 전국대표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MBC PD수첩의 베릴륨 메탈 사용 등 치과기공사 편하 보도로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로인해 베릴륨



전국대표자회 임원

메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문제 등 주위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면서 “반면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우리의 업권을 보호해줄 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었다”며 치과기공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지난 1년동안 협회와 대표자회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기공료 원가를 산출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이제는 2012년 하반기 시행될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 기공료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성과를 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체 회원들도 치과기공계가 단합된 힘을 통해 업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영석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대표자회는 회원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들에게 직면한 과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공요금 현실화를 비롯하여 인권과 권익을 대변하고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을 협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우리함께 소통과 사랑이 가득한 치과기공사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가 후배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자”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송익현 수석감사, 김용중 감사, 이창열 감사에게 감사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제7대 집행부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대표자회 발전에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한 김승호 전 총무이사(쟁이얼치과기공소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임기 만료된 유태봉 전북대표자회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서울대표자회 이철후 명예회장, 양연철 총무이사, 부산대표자회 김명호 부회장, 대구대표자회 노세인 기공이사, 김성태 교육이사, 광주대표자회 주갑수 상조이사, 박창호 심미치과 기공소 대표, 울산대표자회 김주열 총무이사, 충북대표자회 유정현 재무이사, 마루치과기공소 장형수 대표, 전남대표자회 강양호 총무이사, 경북대표자회 이종화 총무이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전국대표자회 제7대 집행부 임원에게는 재직기념패가 수여됐다.

/기자 장수경

회칙 개정후 신임 감사 주동천, 이청재 씨 선출

대한치과기공학회 제33차 정기총회



▲분과학회 합동 학술집담회 개최(4월 8일 코엑스)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 ▲국고지원 혜택 강화 ▲2013년 국제치과기공사 학술대회 준비 ▲의기총 교육평가원 설립 준비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제 지속적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에따른 예산액 8천5백여만원을 승인했다.

도로 멋지고 훌륭한 종합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치과기공학회가 학진에 등재되었다는 점들은 대한치과기공학회가 치과기공사의 학문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극찬하며 대한치과기공학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권혁문 기공학회 고문은 축사를 통해 "대한치과기공학회는 치과기공학의 발전과 학술적인 가치의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년 12월에는 한국연구재단에 학회지가 학술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쾌거가 있었다"며 "2013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치과기공인의 학술대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하여 이규선 학회장과 임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의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임기만료된 교정기공학회 신건섭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내외빈으로 변태희 수석 부회장, 고훈 부회장, 김준길 부회장, 이수연 재무이사, 김희운 기공이사, 오삼남 공보이사, 정인성 교수협의회장, 대한치과기공학회 권혁문 초대 고문, 김영근 고문, 최해명 고문, 김규현 고문 등이 참석하여 기공학회 총회를 축하해 주었다.



주동천, 이청재 신임 감사

대한치과기공학회(회장 이규선)가 지난 11월 26일(토) (주)신흥 대강당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감사로 주동천(TP Korea치과기공소 대표), 이청재(신흥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그동안 협회 감사가 대한치과기공학회의 감사를 겸임했는데 별도의 감사를 선출하라는 협회 감사의 권유로 이번 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신임 감사를 선출한 것이다.

총원 85명중 43명 참석, 10명 위임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에 개최됨으로 대한치과기공학회도 이에 맞춰 총회 일정을 3월로 변경하고 편집위원장도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치과기공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학회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기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의 시행은 협회 이사회 인준 이후부터 적용된다.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총회인단의 추천을 받아 주동천(TP Korea치과기공소 대표), 이청재(신흥대학교 교수)를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 및 수지 결산과 함께

한편 총회에 앞서 가진 개회식에서 이규선 대한치과기공학회장은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치과기공계에서 새로운 학술적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총회가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웅비의 날개를 힘껏 펼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영석 협회장(변태희 수석 부회장 대독)은 격려사를 통해 "해질녘 어물전에서나 들림직한 반값이 치과계에 휘몰아치면서 전문성이 왜곡되고, 공감과 지혜가 실종된 안타까운 시절이었다하면 섭섭할 정도로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이 저물어가고 있다"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기공요금을 현실화하고 노인들니 보험급여 시행에 있어 치과기공요금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치기협이 참여하고 기공요금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성 한국치과기공교수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학술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

〈 2011년 대한치과기공학회 중점사업 성과 〉



이규선
대한치과기공학회장

첫 째 로 2010년 12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대한치과기공학회지는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학술지의 전문성, 참고문헌의 서지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 등을 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준비하여 치과기공계 대표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아탑을 쌓아 올린 대한치과기공학회의 역대 고문님을 비롯하여 김지환 편집위원장님과 김정숙(대구), 정인성, 정종현, 유진호, 박

혜숙, 권은자, 고영학 편집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회 홈페이지를 학술정보서지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학술정보화사이트로 개편하였으며, 논문의 접수와 심사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최신 치과기공기법 교육을 위한 사이버보수교육센터까지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2011년에도 치과기공사 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전국 치기공과 입학정원을 동결하였으며,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서 치과기공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공정하고 타당성이 보장된 치기공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사업, 전문치과기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전문치과기공사 자격시험 및 민간자격시험 시행, 치과기공사 면허/자격 제도의 발전,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과기공평가원을 설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 보건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신의료기술 습득으로 양질의 국민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 및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회원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취업자 및 회원을 위한 국비지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1년에도 약 2억5천 만원의 국고

지원 혜택을 회원여러분에게 제공했습니다.

셋째로 2012년에는 제48차 종합학술대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분과학회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치과기공사국가시험을 전국에서 분산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넷째로 2013년에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15,000여명의 회원과 세계 각지의 치과기공인이 500여명 이상 참석할 수 있는 국제치과기공사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준비위원회의 발족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링 경매쇼, 가면무도회 통해 선후배간 화합 다져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제7차 정기총회 및 문화의 밤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회장 이수연)는 지난 11월 11일 한강 ON RIVER STATION에서 제7차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정기총회 및 문화의 밤 행사의 밤을 가졌다.

이날 문화의 밤 행사에서는 멘토링 경매쇼와 가면무도회가 있었는데, 멘토링 경매쇼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정민수, 박연경 서울여성회 총무의 진행으로 시작된 멘토링 경매쇼는 선배 멘토가 후배들에게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멘토링 서약서를 경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멘토링 경매쇼에 참가한 4명의 멘토는 김희재(MDS치과기공소 대표) 회원, 박철한(B&A치과기공소 대표) 회원, 이유상(프로터치치과기공소 대표) 회원, 김금향(청아치과기공실) 회원 등이다.

김희재 멘토는 좌우명으로 “늘 자신을 믿으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고 했다. 박철한 멘토는 “목표는 가깝게 꿈은 넓고 크게 가져라!”고 당부했다. 이유상 멘토는 “노력은 실력이 부족한 걸 메워주고 열정은 체력이 부족한 걸 채워준다”고 강조했다. 김금향 멘토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다”는 좌우명을 소개했다. 멘토들이 멘토의 기회를 주어 경매한 수익금은 전부 아트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또 지난해 와인파티의 큰 호응에 이어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가면무도회’를 통해 선, 후배의 화합을 다졌다. 특히 CF 안무감독과 뮤지컬 안무가인 이서호(RINGOPOP 엔터테인먼트) 씨로부터 남, 여가 각각 한조씩 짝을 이루어 스윙댄스를 배울 수 있는 댄스타임을 가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멘토링 참가자



김정숙 명예회장과 이수연 전국여성회 회장

이 문화 행사를 주관한 서울여성치과기공사회(회장 신효진)와 임원들의 많은 홍보를 통하여 거의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식에서 이수연 전국여성회장은 “전국여성회는 치과기공사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핸드프린팅 행사인 ‘사랑채움행사’ 등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과기공사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려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석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를 넘어 지구촌 전체의 치과기공사에게 희망의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며 “소통과 사랑이 가득한 치과기공사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고 도전과 창조로 후배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자”고 강조했다.

김정숙 전국여성회 명예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가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CEO의 출현이 기대되며 준비된 여성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한 멋진 모임이 전국여성회에서 첫발을 내어 놓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멘토를 전국여성회에서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협회장상에 김금향 회원, 아름다운여성치과기공인상에는 김임선 회원, 공로패는 김정숙 명예회장이 각각 수여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 및 수입지출 결

산의 건을 심의하고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총회에서는 여성회원들의 회비로 2012년부터 년 2만원씩 건기로 했으며 년1회 일반인에게 치과기공사를 알리기 위한 사랑채움 홍보행사와 년1회 치과기공사회원을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 홍보, 보험관련 교육, 회원관리 전산화, 여성회 신문 발간, 자원봉사 및 회원 복지 향상 등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영석 협회장, 고훈 전국대표자회장, 이규선 기공학회장, 김준길 부회장, 김주석 여성담당 부회장, 김장희 서울회장, 김정숙 전국여성회 명예회장 등 많은 치과기공계 인사가 참석하여 여성회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경기불황시대 성공전략!
(주)다이아몬드 밀링센터

정확한 마진 적합도, 품격 높은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불황극복, 함께해요
(주)다이아몬드 밀링센터

지르코니아 코핑

책임지겠습니다!

치과기공소 소장님 그리고 기공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르코니아 심미보철 사례



경기불황으로 치과병원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시대에는 혼자보다는 협력을 통한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다이아몬드 밀링 센터는 정확한 마진 적합도, 품격 높은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장님과 기공실장님들의 지르코니아 코핑을 책임 지겠습니다.



많은 의뢰 부탁드립니다.

Tel : 845 - 0161 E-mail : cad1127@naver.com

(주)다이아몬드 밀링 센터
문의 및 상담

02)845-0161(代)

비의료인에게 위임진료 ... PD수첩 보도 치기협 행정당국에 진료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

PD수첩은 지난 11월 15일 노인전문 임플란트를 표방하며 빠르게 지점수를 확산해 가고 있는 R플란트 치과그룹이 지나친 영리추구에 몰두하면서 비의료인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일상적으로 불법 위임진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비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치기협은 치과병·의원 치과기공실 근무자 또는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행위가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시나 요청으로 치과병·의원의 진료실내에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일어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지시한 치과병·의원과 치과기공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치과기공사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에는 치협 회원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시나 요청으로 치과병·의원의 진료실내에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PD수첩에 방영된 치과기공사라 칭한 사람을 징계하고 해당 치과를 고발하기 위하여 관련된 치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치기협은 11월 15일 방영되는 PD수첩에 네트워크 치과그룹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비의료인의 업무

일탈행위를 부각시킬 예정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PD수첩 제작팀에 직접 항의하고 항의 공문도 발송한 바 있다.

PD수첩 방송을 접한 한 회원은 “보건복지부는 각 치과에서 근무하며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기사의 어떠한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게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중앙 일간지에 우리의 입장에 대한 항의 글을 게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회원은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치과재료값은 인상된 반면 10년전과 변함없는 치과기공료로 매일 물량 치기에 급급하고 야근수당 없이 계속되는 밤일 등 근무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의 길이 없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약자인 치과기



공사들이 타격을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더이상 치과기공사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방송을 접한 한 시민은 “PD수첩에 방영된 치과를 엄벌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과기공사들도 편하게 치과기공실에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齒技 논설_글로벌 리더 시리즈 2



김웅철

논설위원
보건학 박사
치과캐드캠기공학회 초대회장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학장

죽면 망 한다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죽면 망하거나 죽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우리의 사회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잘나가던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망하거나 죽을 수 있는 시대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외면한 세계 1위 휴대 전화업체인 노키아가 추락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게임기로 흥행을 누렸던 닌텐도도 스마트폰 게임에 눌러 맥을 못 추고 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기수이었던 영국도 과거의 영화를 뒤로한 채 기개를 잃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 노키아와 닌텐도는 “우리가 정한 것이 시장의 표준”이라고 자만하며 스마트폰의 등장을 외면하였다. 영국은 지하철이나 골목 안에서도 핸드폰의 통화가 어렵고 인터넷의 속도가 느리거나 안 되기가 일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기의 사용자와 개발자는 이러한 사실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노키아, 닌텐도, 영국이 궁지에 몰린 이유는 해당기업의 구성원이나 국민이 급변하는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을 외면한 것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다.

우리 기공계도 현재 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틀니의료보험화, 4대보험의 실시, 작업장 건강위해환경의 관리, 최악 수준의 기공료, 최저의 초임과 열악한 근로환경, 디지털과 캐드캠 기공환경의 급변, 세계 최악의 치과기공사 공급과잉 등, 한치 앞을 내딛기 어려운 변혁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난관을 헤쳐야 하는데 죽면 어찌될까? 다른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일까? 잘나가는 소장님이건 직원이건 이러한 변혁의 환경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외면하면 노키아, 닌텐도 영국과도 같이 우리 기공계도 몰락하고 만다.

우리에게 닥친 파도를 주시하며 자기 혁신을 통해 한발 앞서 대처하면서 의연하게 나아가자! 기공소장이건 직원이건 자기 혁신을 하자! 자신과 직장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혁신적인 행동을 이어나가자! 협회, 시도회, 대표자회도 시대적인 위기감을 직시하고 냉철한 자기 성찰을 통해 혁신의 행동을 하자! 격변의 시대에 줄지 말고 혁신적인 행동의 실천을 통해 난국을 헤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여기저기서 삶이 어렵다는 소리가 이제는 귀에 익숙하게 들린다. 그런가하면 몇몇 기업의 CEO들은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리도 들린다. 지금 이 사회는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잘나가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양극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년 만에 국내 최대 게임회사를 키운 넥슨(NXC)의 김정훈 대표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넥슨이 일본에서 기업공개할 경우, 이 회사의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갑부의 반열에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그가 정작 “고민하는 것은 오늘 당장의 일, 하루하루의 생존”이고, 그래서 그는 항상 긴장의

협회 회원증 발급 안내

회원증 발급 안내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사무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 회원증 신청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규정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2010년 2월 이후 회원증 신청을 하지 않는 회원은 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이 제한되며, 규정에 따라 향후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증 신청 방법

협회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협회 홈페이지 메인 하단배너(하나카드) 또는 회원증 신청하기 클릭 → 신청한 회원증 우편발송

이메일 : kdtech@paran.com Fax : 02)2253-2809

이사회 소식

제2011-10차 정기이사회(2011.11.14)



▶ 11월 15일 방송 예정 MBC PD수첩 대응의 건

11월 15일 방영 예정인 PD수첩 제작팀에 직접 항의하고 항의 공문도 발송하였음을 보고하고 협회 임원들도 항의성 댓글을 남기기로 함.

▶ 2012년 행사계획의 건

2012년도 행사계획 일정을 심의함.

▶ 기공학회 지원금에 관한 건

1500만원을 지원기로 함.

▶ 회원 복권·면제의 건

서울회 2명, 경기회 11명, 울산회 1명, 전남회 1명 총 15명에 대하여 시도회 권리복권을 승인함. 또한 경기회 2명, 제주회 1명 총 3명의 시도회 회비 면제를 승인함.

▶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 내년 총선을 맞아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하여 연합회가 후원하는 전국구(비례대표) 출마 희망자로 치기협에서는 송준관 명예회장을 추천함.

▶ 김웅철 논설위원 치과기보 기고 100회 기념패 증정의 건

송년회에서 기념패를 증정하기로 함.

집행부 동정

- ▲ 11. 4(금)~7(월) 손영석 협회장, 김춘길부회장, 조규채 총무이사, 우창우 학술이사, 신영걸 국제이사 대표단과 남상영 부회장, 김주석 부회장, 최병진 기획이사, 남상용 교육이사, 이형원 정보통신이사 제16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참석
- ▲ 11. 5(토) 이선주 대외협력이사, 김정민 보험이사 인천회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고훈 부회장, 신흥준 사업이사 전북회 제4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참석
- ▲ 11. 6(일) 변태희 수석부회장, 구기태 법제이사 경기회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 ▲ 11. 8(화) 손영석 협회장 의료기사단체장 회의 참석
- ▲ 11. 10(목) 김희운 기공이사, 차성권 사무국장 고용노동부 방문
- ▲ 11. 11(금) 손영석 협회장 및 협회 임원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제7차 정기총회 참석
- ▲ 11. 12(토) 손영석 협회장, 이형원 정보통신이사 경남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김주석 부회장, 이선주 대외협력이사 충북회 제36차 정기총회 참석

- ▲ 11. 14(월) 손영석 협회장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 ▲ 11. 15(화) 손영석 협회장 이춘식 국회의원 방문
- ▲ 11. 21(월) 손영석 협회장 서울회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 ▲ 11. 22(화) 손영석 협회장 임시 의료기사단체장 회의 참석
차성권 사무국장 의료기사단체 실무자 회의 개최
- ▲ 11. 23(수) 신흥준 사업이사 제35차 남북구강보건의료협회의 실무위원회의 참석
- ▲ 11. 26(토) 손영석 협회장, 이선주 대외협력이사 양승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변태희 수석부회장 대한치과기공학회 제33차 정기총회 참석
- ▲ 11. 29(화) 손영석 협회장 의료기사단체장 회의 참석
최병진 기획이사 대한구강보건협회 송년회 참석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의료기사단체장들이 지난 12월 6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영석 협회장은 “노인틀니 보험 급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정부가 만족할 만한 제도에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참여해야 하고 치과기공료는 치과기공소가 직접 수령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손영석 협회장은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정부에서 정한 적정한 제작비가 치과기공소에 전달되지 못하면 질 낮은 보철물로 인하여 이 정책은 일본처럼 주머니속의 틀니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의료정책과와 가진 간담회에서 치과기공료 직접 수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손영석 협회장, 양승조 의원 출간 ‘축하’



이선주 대외협력이사, 손영석 협회장, 양승조 의원, 김세영 치협회장, 김영남 충남치과기공회장

열렸다.

손영석 협회장과 이선주 대외협력이사는 이날 출판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양승조 의원의 책 출판을 축하하며 친분을 다졌다.

자서전 성격의 ‘KTX로 새벽을 열다’를 제목으로한 이 책은 양승조 의원의 지난 어린시절부터 꿈꿔 왔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지난 7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내용과 사진이 함께 실려 있다.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양승조 민주당(충남 천안시 갑)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1월 26일 천안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3년 제17차 아태회의 한국에서 개최 아태지역 치과기공사연맹 의장 김영곤 현 회장 연임 제1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기공사연맹 회의

2013년에 개최되는 제1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기공사연맹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지난 11월 4(금)~7(월)일 필리핀 폰타나온천 레저파크 클라크 팜팡가에서 개최된 제1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기공사연맹 회의에서는 2013년에 개최되는 제17차 아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의장국도 한국으로 결정했다.

신임 아태연맹 의장에 김영곤 현 회장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되어 총 8년간 한국에서 의장을 맡는 영예를 안았다.

회의에서는 각 나라별 치과기공의뢰서를 표준화하기로 의결하고 언제, 누가, 어떤 재료로 제작하였는지, 제작자 및 사용재료명, 성분, 함량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기공의뢰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수년전부터 기공의뢰서 상단에 바-코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바-코드가 없는 기공물 제작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기공사연맹 로고를 제작하기로 했다. 로고는 제16차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17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2013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 아태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6개국에서 5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김영곤 아태연맹 회장과 한국대표단으로 손영석 협회장, 김준길 부회장, 조규채 총무이사, 우창우 학술이사, 신영

결 국제이사를 비롯하여 남상영 부회장, 김주석 부회장, 최병진 기획이사, 남상용 교육이사, 이형원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으며 회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재선임된 김영곤 아태연맹 회장

“미가입 국가 참여에 주력할 것”

“미가입 국가를 아태회원국으로 참여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기공사 연맹회의에서 회장으로 재선임된 김영곤 회장은 “앞으로 임기동안 아태지역 국가중 치과기공사협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국가에 협회를 만들도록 지원, 아태지역 협의회에 가입하도록해 지역 국가의 치과기공사 권익 향상과 학술 및 기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아태연맹 회장은 “올해 7월에 필리핀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협회 설립 인가가 났으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인가 예정중에 있다”며 협

회가 설립되면 기공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곤 회장은 “2013년 한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 학술대회와 아태 치과기공사연맹 회의는 한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자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세계 각지의 치과기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손영석 협회장과 함께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내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가능하면 초청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ED 기공용현미경 「카드 3,6,9 개월 무이자할부 행사」



- 서비칼, 마진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최적의 비율 (X10배)
- 긴 수명의 LED 램프 : 낮은 유지비, A/S 경비 절감
- 고해상의 접안렌즈
- 본체를 전/좌/우측면으로 자유롭게 설치 가능
- 길고 실용적인 자바라 형태로 편안한 작업공간 확보
- 접안렌즈 헤드 고정 슈프트 360° 회전 가능

모델	GDM 101	조명장치	고휘도 백색 LED램프 ON/OFF SW
헤드	45° 쌍안식	암 방식	자바라식
총 배율	10X	작업거리	150mm
대안렌즈	WF 10X	전원	AC 220V 60Hz



■ 가격 ₩ 580,000

Goodscience 굿 사이언스(GOOD science) <http://www.goodsience.co.kr>

☎ 주문 및 문의
0505-896-7475



11월 30일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개정으로 종전 12월에 열리던 총회가 내년 4월로 변경되어 감사를 해야 할 범위가 넓어져 중간감사가 필요하다는 감사단의 요청에 의하여 2차례 감사가 실시됐다.

첫 번째 감사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

회무전반에 대한 중간감사 실시

후 11시까지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재정 외에 협회 정책사항과 위원회별 업무 등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

두 번째 감사는 지난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재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다.

감사는 ▲ 주40시간, 주5일제 근무했을 때 현재 기공료로는 치과기공소 경영이 어려워 기공료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점 ▲ 지난 8월 PD수첩 보도로 치과기공사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추락한 것과 관련하여 PD수첩에서 T3메탈을 다루기 전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 ▲ 일부 수입업체의 매점매석으로 소

비자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 업체에서 폭리를 취했는데도 협회에서 한진덴탈을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 ▲ 제47차 종합학술대회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협회의 미진한 대처부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한균·배종백·배정민 감사에 의해 진행된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단이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했다.

중간감사 결과는 11월 30일 고문, 명예회장, 의장단, 협회임원,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가 보고했다.

남구협, 개성 공업지구 근로자 치과진료 추진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5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회의(이하 남구협)가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북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구협 실무위는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개성공업지구 치과진료사업과 관련해 논의를 갖고 기존에 개성공단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는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에 대한 치과진료를 진행키로 했다.

실무위는 12월중 5개 유관단체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과 MOU를 갖고 ▲양 기관

공동으로 개성공업지구 치과진료를 비롯해 ▲개성 공업지구 근로자의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향후 남·북한 치과진료 사업 발굴 및 추진 ▲기타 개성공단 공공의료사업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제작을 완료한 부속차량에 대한 개소식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실무위는 이동치과병원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의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추후 운영방안 및 운영에 따른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밖에도 남구협 분담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되는 개성공업지구 치과진료사업을 포

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비해 예산확보에도 5개 유관단체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실무위 회의에는 신홍준 협회 사업이사를 비롯하여 최치원 치협 대외협력이사, 이상복 건치 남북특위 위원, 배현숙 치위협 부회장, 김용택 치재협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2012년 1학기 신구대학 치기공과 직무실기 실습처를 모집합니다.

실습방식 : 인턴 씬(3학년 재학생 대상)

모집기간 : 2012년 1월 7일 ~ 1월 18일까지

실습기간 : 2012년 2월~ 6월

2월(매주 월~금) / 3~6월(매주 수~금)

등록문의 : (031)740 - 1311



신구대학교
SHINGU COLLEGE

서울회 총회 특별회비 모금기로

서울회(회장 김장회)가 치과기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최근 일련의 보도에 대한 대응, 2012년부터 급여화되는 노인틀니 기공수가 별도산정 및 청구대 국민 홍보 등 치과기공계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1억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특별회비 모금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구회장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서울회(회장 김장회)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1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회칙 개정(안) 심의, 부의장 보선 및 감사단 선출, 2012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심의, 서울치기공업협동조합 계약, 구회 상정안건 등을 다뤘다.

196명의 대의원중 참석 85명, 위임 28명으로 성원된 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에 맞춰 회칙을 일부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하고 정기대의원총회 날짜를 '1월'로 변경했다. 또한 '재적대의원' 2/3로 되어 있는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을 '재석대의원' 2/3으로 변경했으며 치과기공소 인력 채용시 국비지원금 대행, 회원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담당할 노무위원회를 신설했다.

회장단, 총무 및 감사단, 의장은 '자동 중앙대의원'이 된다는 조항에서 '자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재정항목에 '회관 구조변경'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부결됐다.

총회에서는 김정렬 부의장의 사퇴로 권찬두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며 감사 선출에서는 윤승렬, 김상원 감사를 연임하고 전덕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했다.

각 구별 상정안건으로는 ▲영업사원 고용 치과기

공소 단속 ▲공정거래규약 현실에 맞게 개정 ▲기공료 현실화 등을 협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불량거래처, 고액미수 거래처와 홈페이지에 신상공개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대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회가 검증토록해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PD수첩(베릴륨 기준치 초과 메탈) 보도와 관련한 치과기공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협회에 상정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회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서울치기공업협동조합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결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MBC PD수첩에서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위임진료 실태를 보도한 것과 관련, PD수첩의 방송내용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해당 네트워크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가 누구인지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네트워크치과와 불법위임진료를 행한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협회에 제출했음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총회 개최식에서 김장회 서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치과기공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부가 최근 수차례 토의를 열었으며 그 해결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석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인틀니 보험화가 내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공료 직접 청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김종환 서울회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유하식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외협력위원과 한국3M(대표이사 정병국), 김정열(바오로메디칼 대표)

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강동구회(최우수구), 서초구회(우수구), 강서구회·성동구회·영등포구회(장려구)에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홍성준(JUN생각쟁이치과기공소 대표) 회원, 김동희·김상원·윤승렬 감사에게 재직기념패를 수여했다. 이수안(수인치과기공소)·전지숙(마스터치과기공소)·김의진(청치과기공소 대표)·최은식(삼선치과기공소 대표)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내빈으로 손영석 협회장, 서울회 윤남기·김태익·곽만호·문일·권혁문·고형칠·임호순·석일현·최해명·김규현(고문 및 협회 대의원총회 의장)·강종원·김춘길 고문, 김종환 명예회장, 양정조 인천회장, 김민수 경기회장, 이태훈 대한치과기재협회장,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해 주었다.



신임 감사

인천회 총회 2012년도 예산액 1억여만원 승인



인천회(회장 양정조)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1월 5일 오전 9시부터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됐다.

대의원 74명중 62명 참석(위임 15명 포함)으로 성원된 총회에서는 2011년도 감사보고 및 회무, 결산 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012년도 예산액 1억여만원을 승인했다.

2012도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협회 정관에 준하여 회계연도를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하고 총회는 협회 총회 1개월 전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회식에서 양정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수가

일부 네트워크치과로 인하여 불거진 베릴륨이 함유된 메탈문제, 기공료, 인력난과 기공물 감소로 기공계는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2011년 현재 5,000여명 이상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타직종과 비교하여 낮은 급여와 어려운 근로조건이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며 "치과가 저수가 치과로 인해 피해를 보듯이 치과기공소 역시 일부 저수가 치과기공

소로 인하여 다수의 치과기공소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기공사들이 이직을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회원 여러분 모두 함께 깊은 반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정조 회장은 또 "집행부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학술세미나를 강화하고 횡수도 늘려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2012년에도 최상의 연자를 초빙하여 회원의 실력을 높이는 인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최태주(태성치과기공소 대표)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최호(수정치과기공소), 정송균(스카이치과기공소) 회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협회장 표창패는 서종현(한솔치과기공소 대표) 회원이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주)하이덴탈코리아(대표 김용락)에게 수여했다.

인천회 가입 5년이상, 회비 100%완납 및 최근 3년간 보수교육을 100% 이수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우수회원 표창은 6명(김재숙(제일), 나일주(나노), 이주현(아텐스), 최호(수정), 최흥태(수정), 홍명수(사랑))에게 수여됐다.

내빈으로 이선주 협회 대외협력이사, 김정민 협회 보험이사, 김장회 서울회장, 김민수 경기회장, 이상호 인천치과의사회장, 권경희 인천치과위생사회장, 이철후 서울회 부회장, 김종화 경기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해 주었다.

총회와 함께 열린 보수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는데 오전부터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수교육은 오전 강좌로 박치민(박치민치과기공소 대표) 연자가 Porcelain Live 강의를 하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오후 강좌로 장성환(덴트라치과기공소 대표) 연자가 Non Beryllium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대전회 총회 ‘대의원제도로 변경’... 1년간 시범대의원제도 운영기로



대전회(회장 이재호)는 지난 10월 22일 대전보건대학 강당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 행사를 빛내주기 위하여 김주석 협회 부회장, 정종건 협회 기자재이사, 김원수 대전보건대학 치기공과 학과장, 최종협 대전회 명예회장, 강석만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등의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호 회장의 인사말, 손영석 협회장의 격려사(김주석 협회 부회장 대독)로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재호 회장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치과기공료를 현실화해야 우리 모든 치과기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내빈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시상식에서는 박준현

(드림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재무이사에게 협회장 표창패를, 권미나(월치과기공소) 회원에게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정기총회는 백영훈 총무이사의 진행과 이재호 회장이 의장으로 2011년 사업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의 건을 심의하고 2012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을 통해 협회 정관 개정에 맞추어 회계기간과 총회일자도 변경했다.

차기 집행부의 원활한 회무 진행과 대전회 회비에 대한 경비 절감 및 총회 과반수 참여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제도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대의원제도를 채택하기로 하고 1년간 시범대의원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경기회 총회 “대 경기회를 위한 회칙 개정”

경기회(회장 김민수)는 지난 11월 6일(일)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보충보수교육을 동남보건대학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 내빈으로 변태희 협회 수석 부회장, 구기태 협회 법제이사, 김장희 서울회장, 양정조 인천회장, 이수연 전국여성회장, 이성욱 서울대표자회장, 신효진 서울여성회장 외 서울 및 인천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정기총회는 민병국 명예회장이 의장으로 진행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총회에서는 이미 늘어난 회원 수와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더 성장할 대 경기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회칙 개정을 통해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자격과 대의원의 자격을 변경했다.

또한 회칙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여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협회 정관 개정에 맞춰 총회 날짜도 변경하였다.

또한 이날 서울·경기·인천의 TF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기공료 현실 방안과 앞으로의 지침(11월 19일 서울·경기·인천회 각 임원 및 대표자 임



원, 구회장, 분회장 모임)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협회회장상은 김춘성 기공실무이사가 수상하였다.

충북회 총회 ‘기공계 현안 일간지 광고’ 협회에 건의키로



충북회(회장 최재우)는 지난 11월 12일 제36차 정기총회를 신동보성에서 개최했다.

최재우 충북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새로운 기공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으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치과기공인으로서의 자긍심

을 지키며 나 자신만의 이익 보다는 치과기공계의 발전을 우선시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공료 현실화와 더불어 우리 모든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 밝혔다.

손영석 협회장의 바쁜 회무 일정관계로 참석한 협회 김주석 부회장은 “함께 소통과 사랑이 가득한 치과기공사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고, 도전과 창조로 후배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자”고 격려사를 대독했다.

제36차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회무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2012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 승인도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총회에서는 협회 정관 변경에 따른 회칙변경 및 임

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안건이 통과되었고, 기공계 현안에 대한 3만여 치과기공사의 입장을 협회의 주도하에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을 협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시상식에서는 도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공로로 협회장상은 이흥희 회원, 도회장상 김용성, 김재수 회원이 수상했으며, 알파합금의 최인범 대표가 전 회원의 감사를 담은 감사패를 받았다.

내빈으로 협회 김주석 부회장, 이선주 대외협력이사, 홍정의 충북치과위생사회장 등 많은 분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구회, 광주회, 대전회, 울산회, 충남회, 경남회, 충북치과의사회, 충북치과위생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성대학에서 총회를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주었다.

주소 변경시 알려주세요

TEL 02) 2253-2800 FAX 02) 2253-2809

전국 회원님께 알립니다.

요즘 회원님께서 협회에 치과기보가 안온다 내지는 우리 우편물이 아닌데 자꾸만 온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를 하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이사를 갔거나 직장을 옮긴 회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소가 바뀐 즉시 지회에 알려 치과기보가 제대로 발송이 되도록 회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회 총회 신임 회장에 최운재 교수 선출

지난 11월 5일 전북회(회장 최재영) 제4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1부 학술대회에서 INTECH dental laboratory Network 유하성 대표가 The Conviction for Esthetics(아름다움을 향한 신념)라는 연제로 강의를 하였다.

2부 개회식에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용의 고문, 고 훈 협회 부회장, 신홍준 협회 사업이사, 정한균 수석감사, 이광일 광주회장, 한병훈 전남회장, 이순현 광주대표자회장, 전북회 이정오 고문, 박동윤 고문, 이성효 명예회장, 장기호 의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장기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재영 회장의 인사말, 고 훈 협회 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시상식에서 장기호 의장이 공로패, 신동욱 정보통신 이사와 유상희 여성이사가 협회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주분회 양해민, 신상진 회원, 익산분회 박종수 회

원, 정읍분회 유영길 회원에게 모범회원 표창패가 수여되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김수빈 학생(3학년)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어 약 40명의 신입 회원이 소개되어 선배 회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3부 정기총회 임원 선출에서는 신임회장 최운재 교수(원광보건대학교), 의장 소정모 회원(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공실), 감사 김병무 회원(예수병원 치과기공실), 이요택 회원(백제치과기공소)이 선출되었다.

최운재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속히 다변화되는 현실 앞에 전라북도치과기공사회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배 임원님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 신지식과 신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회원일자 발굴, 치과의사회와 소통을 하고 치과기공료 현실화, 면허갱신제도 적극 활용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 각 분회 활성화, 여성회원들의 권익 신장, 구인, 구직 창구를 개설 하

여 취업박람회 개최 등에 역점을 두고 전라북도치과기공사회는 물론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임 최운재 회장과 최재영 회장

경남회 추계 학술대회 심층적, 전문적 학술교류로 치과기공계 발전시키자

경남회(회장 김양근)는 지난 11월 12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11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양근 경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48차 종합학술대회가 우리 지역인 경남 창원에서 개최됨에 있어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심층적, 전문적 학술교류를 해 치과기공계를 홍보,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술강연으로는 전정호, 손원배 연자가 강연을 했다. 첫 번째 강연을 한 전정호(연세의료원 중앙기공실) 연자는 ‘Aesthetic Denture’를 연제로 시대

적 흐름에 맞추어 기능과 심미를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Denture 제작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강연을 한 손원배(담치과기공소 소장) 연자는 ‘Aesthetics with composite’를 연제로 Indirect composite resin 왜 주목해야 하는가?, Signum의 기본적 이해 및 Matrix system 활용법, Metal free signum ceramis의 이해에 대해 소개했다.

시상식에서 협회장상 표창장은 김양미(수치과기공소 대표) 회원이 수상했으며 우수모범 회원상은 김영세(바른니치과기공소), 김철규(다인치과기공소 대표) 회원이 수상했다.

한편 내빈으로 손영석 협회장, 변태희 협회 수석



부회장, 이형원 협회 정보통신이사, 배종백 협회 감사, 배병수 부산회장, 예동수 울산회장, 경남치과의사회 황상운 회장이 참석하여 경남회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었다.

대전대표자 총회 ‘입회비 인상’ 통과

2011년도 대전대표자회(회장 권근우) 정기총회에서는 윤서열 전국대표자회 총무이사, 고찬중 전국대표자회 기자재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시상식에서는 김국진(맑은치과기공소) 회원이 모범회원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을 심의하고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의 건으로 대표자회 입회비를 1백50만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통과하였다.



부산회 원로회 2011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11월 5일(토) 가을이 떠나가기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2011년도 부산회 원로회 정기총회가 동래 산성토속주점에서 개최되었다.

서병식 원로회 회장은 매년 춘계야유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2회 이상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원로회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회원들과의 친목도모와 선후배간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자리를 가져왔다.

총회에서는 원로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회원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60~64세 회원은 준특별회원으로 정하여 예우는 정회원과 동일하게 하고 조의규정에 배우자도 회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끝으로 부산시치과기공사회 원로회의 융성을 모두가 기원하며 맛있는 음식과 담소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서울·경기·인천 기공사회 내년부터 인증마크 발급



서울·경기·인천 치과기공사회는 인증마크 발급 요건으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대표자 ▲기공수가 질서 문란 행위 하지 않은 대표자 ▲논 베릴륨 메탈 사용 확인서를 작성한 대표자 ▲인증마크 무단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대표자 등이어야 한다.

3개 시도회는 소속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2차례 이상 설명회를 갖고 인증제도의 시행 취지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모든 치과병의원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치과기공사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치과의 기공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에 유해한 베릴륨 함유 메탈을 전면 사용 중지 및 회수한다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치과기공사 스스로의 윤리 및 보수교육 등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치과기공사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제로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 치과기공소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치과기공사회와 치과의사회는 상호간 더 큰 가치와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현안들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기공료 현실화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한다 등을 담은 결의문을 각 회원 및 미가입 회원들에게도 전달하고 홍보해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에 개원한 치과병·의원 기공계의 자정노력을 적극 알리고 현실성 있는 기공료 반영에 대해 협력해 달라는 협조문도 3회에 걸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 치과기공사회는

“인증제도를 통해 미가입 회원들의 회원 가입 및 자정작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경기, 인천의 치과병·의원에서도 3개 시도 기공사회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인증마크를 확인해 인증마크가 없는 업체와 거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장희 서울회장은 “베릴륨 건으로 치과기공사의 위상이 추락하고 주40시간 근무제로 치과기공소 운영이 매우 힘들어졌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전국 20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치과기공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안타깝다. 후배 기공사들을 위해서라도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경기회장은 “배부르게 먹는 현실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3개 시도회가 모인 것으로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회 차원에서 발로 뛰어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밝은 기공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정조 인천회장은 “너무나 절박해 3개 지부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힘들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다. 향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3개 지부의 단합된 힘으로 타계해 나갈 것이다”며 치과의사들도 인증서가 발급된 치과기공소만 거래한다면 미가입 기공소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6일 서울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증마크 발급에 대해 설명했다.

송영주 회원 치협·참여연대 등에서 1인 시위 “치과기공료 공단 직접 수령돼야”



송영주 회원이 노인틀니보험화 사업에 대한 기공료 공단 직접 수령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송영주 회원은 지난 11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민노당 사무실, 탑골공원, 대한치과기공사회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에 앞서 삭발을 진행한 송영주 회원은 “일본은 기공료를 간접수령 방식으로 치과의사한테 받았고 결국 일본 치과기공계는 쇠퇴하고 초토화되었다”며 “기공료는 공단에서 직접 수령 받아야 하고, 정부 고시 가격으로 당연히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주 회원은 “몇해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약사회의 주장아래 의약분업이 이루어져 약사들은 일부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받고 있다”며 “치과기공료 또한 구강보건 증진에 따라 정부 고시 가격으로 등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리다매로 이루어지는 저가, 저질 기공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잉경쟁 유발시켜 저가 치과기공물 요구하는 치과의사는 각성하라 ▲정부에서 행한 복지정책 치과기공료는 나라에서 책임져라 ▲치과기공료 정부 고시가격으로 등재시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져라 등 3가지를 내세우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현재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소식

신임 학회장 유진호 교수 선출 교정기공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집담회

교정기공학회(회장 신건섭) 제14차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집담회가 지난 11월 20일 (주)신흥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회원들의 학술연마를 위해 서로 다른 주제의 연자를 초빙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둔 이번 추계 학술집담회는 제1강좌로 이화진(고운미소네트웍스 회장) 연자가 Functional Appliance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제2강좌로 김은숙(티피치과기공소) 연자는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술자의 분명한 치료 목표와 그것을 뒷받침해줄 브라켓과 와이어 선택 방법을 모색하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Self-ligation 브라켓의 종류와 디자인과 장점을 소개했다.

마지막 강연을 한 박삼기(화이트스타일치과 부장) 교정학회 학술이사는 최근 교정치료방법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장치와 제작과정을 소개했다.

제14차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유진호(마산대학, 치의공학박사) 교수는 선출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소규모 그룹 세미나 개최 추진, 유용한 해외 정보의 국내 소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11년도 회무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했다.

신건섭 회장은 “나날이 변화가는 기공 술식과 디지털화의 바람속에서 교정기공계도 많은 변화를 접하게 되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해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며 기초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신임 유진호 회장은 “교정기공학회 회원으로서 자



공심을 가질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료 공동구매, 소식지 발간, 회원증 및 연수증 발급 등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신 지견을 반영한 학술강연 기획, 여성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 시대를 읽어나가는 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의 보철술식과 다양한 임상예로 기공노하우 소개

임프란트기공학회 추계 학술집담회 및 총회



임플란트기공학회(회장 윤여천)는 지난 11월 13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대강당에서 추계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학술집담회에는 총 4명의 연자가 강연을 했다. 오

전에 강의를 한 김영원(탐치과기공소 대표) 연자는 ‘성형 심미보철의 미학’과 ‘임프란트와 변색치에서의 지르코니아 빌드업’을 주제로 빛에 따라 변화하는 컬러에 대해 논의하고 변색치에 대한 지르코니아 수복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상 케이스를 포함한 보고서를 강의와 실제적인 데모를 통하여 회원들과 논의했다.

오후에는 3명이 연자가 강연을 했는데 정요섭(제이텐치과기공소 대표) 연자는 ‘캐드캠을 이용한 임프란트 보철수복’에 대해 강연을 했으며 박경규(스카이치과기공소 대표) 연자는 캐드캠을 이용한 Customized Abutment 제작과정과 그를 이용한 임프란트 보철제작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강연을 한 박홍준(다움치과기공소 소장) 연자는 ‘INNOVATION OF LAB’를 연제로 붕어빵 I, II를 이용한 IMPLANT PROSTHESIS, E-MAX PRESS를 이용한 IMPLANT PROSTHESIS,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IMPLANT PROSTHESIS를 강연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회무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을 심의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윤여천 회장은 “국내외의 최신 정보와 다양한 임상예를 알고 보다 나은 학술 연마에 보탬이 되고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연자들을 모셨다”며 회원들의 학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빈으로 이규선 기공학회장, 전정호 기공학회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최신 치과보철기공물 제작에 대한 연구” 주제로 8개 강연 진행 2011년 치과기공기재학회 추계학술대회

치과기공기재학회(회장 차성수)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0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최신 치과보철기공물 제작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6개의 Oral Session과 2개의 Special Session으로 총 8개의 강연으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는 미래 치과기공계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100여명의 치과기공사 및 치기공대학교 학생이 참석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오전 강의로 최성민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의 Selective Laser Melting System의 임상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정인호 교수(김천대학교)의 All Ceramic 두께에 따른 분광광도계 투과율에 관한 연구, 배병수 대표(주:이센)의 디지털 치과시대의 CAD/CAM 활용, 박광식

교수(대구보건대학)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치과 임상모형제작, 이청재 교수(신흥대학교)의 Zirconia block의 강도 비교, 강후원 교수(동아인재대학교)는 치과 보철용 Ti 합금의 개발동향에 대하여 학술발표를 하였다.

중식 이후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국내 연자로 차성수 교수(진주보건대학교)의 치과보철기공물 품질검사법에 대하여, 초청 연자로 Baris Cakir(Territory Product Manager)는 Introduction of Ceramill CAD/CAM에 대한 견해를 강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인성 학장과 배병수 부산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개회사에서 차성수 치과기공기재학회



장은 “우리 학회는 치과기공소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해주는 학회가 되도록 모든 회원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행사 후 학술대회에 만전의 준비를 다한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선두 역할 다짐 가철성치과기공학회 추계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가철성치과기공학회(회장 한만소)는 지난 11월 6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의관 강당에서 추계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회원들이 강연장을 찾아 뜨거운 학술열기를 보여준 이번 학술집담회에는 총 4명의 연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김육태 신흥대학 교수는 치과 기공사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 모형으로 작업(치료)의 전체를 완성해야 하고 구강에 조화롭고 심미적인 보철물을 제작, 완성하기 위해서는 Model analysis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합이론과 교합기 운용법'을 소개했다.

김재구(우신치과기공소 대표) 연자는 전악 보철치료에 있어서 교합평면의 설정과 좌우 대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파샬 지대치의 제작, Konus Denture 외관 제작에 있어 예비배열은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강의에서 김정욱(모아치과기공소 대표) 연자는 RPD 메탈 프레임 제작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서베이작업과정에 ZERO TILT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와 더불어 RPD 지대치에도 함께 적용하여 좀더 쉽게 지대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한 박정기(무암치과기공소 대표) 연자는 RPD clasp를 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와 유지, 지지, 파지의 각각 기능에 알맞은 지대치 형성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이 지대치 형성법에 따른 설계의 다양성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강연으로 참석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학술집담회와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입회원서 접수 등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학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분과학회 통합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 정책에서 가철성학회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만소 가철성기공학회 회장은 “아날로그

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모해가는 중요한 기점에서, 기본을 알고, 보다 나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만들고 싶다”며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령화시대의 심미적 욕구 변화에 대한 총족을 위해 오늘 학술대회가 참석자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빈으로 전정호 기공학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심미보철기공학회(회장 육범수)는 지난 11월 20일 연세대 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추계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3명의 연자가 강연을 한 이번 학술집담회에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전정호(연세의료원 중앙기공실) 연자는 보편적인 덴처보다는 심미 덴처에 대한 욕구가 국내외적으로 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능과 심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덴처 제작에 대해

해에 대해 소개하고 라이브 데모를 했다.

마지막으로 강연한 박병윤(청담 예치과 심미보철실장) 연자는 임상에서 심미보철 제작시 일반적인 빌드업테크닉과 내부스테인의 효율성을 비교해보고 작업과정중 효율성을 높이면서 심미적 완성도는 떨어지지 않게 상기 두가지 방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와 어떤 케이스에 적합한지(내부 스테인)를 소개했다.

‘기능과 심미의 조화’ 노하우 소개 심미기공학회 추계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강연을 했다.

두 번째로 강연한 손원배(탐치과 기공소 대표) 연자는 ‘Indirect composite resin 왜 주목해야 하는가?’를 연제로 Signum의 기본적인 이해 및 Matrix system 활용법, Metal free signum ceramis의 이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제4장 임원 및 선거의 제22조 1항을 상위법 우선에 의거하여 개정하여 각 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2011년도 회무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을 심의했다. 감사보고에서는 춘계 및 추계 학술집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학회의 외형적 성장과 내실에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심미기공학회의 위상을 높여준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육범수 회장은 “새로운 재료, 기계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좀 더 심미적인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이때에 시대 변화에 맞춰 심미보철치과 기공학회가 기공계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빈으로 전정호 기공학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캐드캠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회원 피해 막겠다 캐드캠기공학회 송년회 밤 및 총회

캐드캠기공학회(회장 김종원)는 2011년을 마감하는 송년회 밤 및 총회를 지난 12월 1일 상왕십리역 부근 '베아르시'에서 열었다.

총회에서는 캐드캠 장비 구입전에 효율성을 신중히 따지지 않고 시대적 흐름이라는 영업사원의 권유나 광고를 보고 캐드캠 장비를 구입했으나 오히려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거나 수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캐드캠학회가 주축이 되어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2011년도 회무보고, 재무보고를 했으며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012년에 분과학회 통합학술집담회가 개최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

기로 했다.

개회식에서 김종원 캐드캠학회 회장은 “다가올 치과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일들을 조사, 연구, 발전하여 치과계에 디지털의 표준과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희 서울회장은 “대국민 홍보기금으로 1억원을 마련하는 것이 총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치과기공계의 현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캐드캠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강연으로는 ABOUT Digital Dentistry 강연이 있었으며 내빈으로 김규현 기공학회 고문, 이규선 대한치과기공학회



장, 기공학회 전정호 총무이사, 김장희 서울회장, 김웅철 초대회장 등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해 주었다.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2011 진로·직업 박람회 통해 치과기공사 직업 홍보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가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 4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2011진로·직업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여 치과기공사 직업을 알렸다.

65개 이색 직업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 중·고등 학생들 및 학부모, 교사, 진로교육 담당자 등 3만 5천명 이

상이 방문하였다.

대전보건대학교 김원수 교수는 “치과기공 보철 제작과정은 어떻게 하는가? 많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직접 모형과 왁스블럭을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보철물 제작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며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호응하는 너무나 좋은 자리가 되었으며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께 치과기공사의 직업을 알리는데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원수 교수는 “치과기공사의

직업을 전하는데 있어 뜻깊은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치과기공사의 직업을 알리는데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진로 박람회는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고 미래사회 트렌드에 맞는 직업이나 학과를 선택하여 자신의 향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덴탈2804 전국모임

기성세대와 신세대 공감 갖는 뜻깊은 자리돼

지난 11월 26일 충남의 천안 축구센터에서는 덴탈 2804 전국모임이 열렸다.

1박2일로 진행된 강연과 토론회는 시도회장과 학생까지 100여명이 참여하여 학술대회를 방불케하는 열기로 밤 11시까지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새벽까지 허심탄회한 얘기로 심야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학생과 일반회원은 현안과 미래를 걱정했으며 대표자 및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대한 회한을 토로하였다.

자유토론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알게 되었고 신세대는 기성세대가 가지는 현실의 어려움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민수 경기회장, 배병수 부산회장, 이형원 협회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하여 2804회원 90여명이 참가하였다.

둘째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1시까지 쉬지 않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우리 기공역사 이래 처음 갖는 자리라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당면



과제와 아울러 홀대받는 기공사의 단결고취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에 살아 남는 법과 내년에 적용될 틀니보험에 대한 정보교환, 4대 보험을 비롯한 복지 및 처우개선, 협회 회원으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안될거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은 서로 교감하기도 하였고, 현실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도 했으며, 미래를 개척코자하는 각오도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안된다는 패배감을 버리고 이후 폭넓은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덴탈2804 관계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는 없는 토론회였지만 서로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인지하고, 소장과 기사가 대결구도가 아닌 같은 치과기공사로서 방법은 다를지라도 생각은 같다는 것을 느끼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주소 변경시 알려주세요

TEL 02) 2253-2800 FAX 02) 2253-2809

전국 회원님께 알립니다.

요즘 회원님께서 협회에 치과기보가 안온다 내지는 우리 우편물이 아닌데 자꾸만 온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를 하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이사를 갔거나 직장을 옮긴 회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소가 바뀐 즉시 지회에 알려 치과기보가 제대로 발송이 되도록 회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덴탈
bandodental



“인터넷기공판매” 천 두 주자!
반도덴탈 www.bandodental.co.kr
지르코니아블럭 판매실시 및 상담

2011년 감사 이벤트

**12월 한달동안 주문하신 모든 고객님께
주문 금액의 5% 적립시켜 드립니다**

• 조 건 : 1주일 1회만 적용

• 기 간 : 12월 30일까지

“반도덴탈 검색 인기”

080-536-3371, 054-533-3244

유관단체소식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반세기만에 성과 거둬 김원숙 치위협회장 “최소한의 업무현실 반영한 것”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반세기만에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현실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명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 공포되면서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숙원사업이었던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문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었으며 그동안 행정처벌 사례로 간주되어 왔던 업무가 포함되었다.

지난 11월 12일 시청인근 호텔에서 가진 의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자간담회 및 자축연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개정령 통과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원숙 회장은 "가장 기쁜 것은 개정작업에 있어 우리가 막무가내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수용되었다는 점이다"며 "이번 개정이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재평가되는데 초석이 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치과진료의 선진화에 한 획을 긋

는 대전환점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모 네트워크 치과사태의 와중에도 불법 위임진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진료업무에 있어 적법한 선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는 물론 치과의사도 제도적으로 보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치위협은 지난 2008년 의기법 시행령 제2조 6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치협과 함께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TFT를 구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중재 아래 합의점을 도출한데 이어 12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부 의료기사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율을 통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치위협은 치협 및 의료기사단체와 대한간호협회 등 범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로부터 동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한편, 나열한 업무에 대하여 학문적 근거중심의 객관적 국내외 자료를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 개정에 온 힘을 쏟아왔다.

입법예고 후에는 구강생활건강과장 교체,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 등의 변수로 개정령안 통과가 지연되자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전회원 서명운



동과 함께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솔 바꾸는 날'에 맞춰 대국민 서명을 벌이고 탄원서 제출 및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등 강경한 대처를 해나간 것이 개정령 통과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숙 회장은 "앞으로 학제통일, 의료기관 직제 개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치과질환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요양시설 의무배치 등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인력수급을 위한 고용지원센터 운영, 공익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제반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축제 분위기이다.

(주)신흥,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 One-day 세미나 전국 투어 성료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의 실제적 작업에 도움 줘

(주)신흥이 지난 9월에 시작된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 One-day 세미나 전국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 One-day 세미나는 지난 9월 서울, 부산, 대구를 시작으로 10월 8일 광주, 10일 전주, 22일에는 중부권(대전,충청) & 강원도(강릉)에서 개최되었으며, 지난 11월 5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뿐만 아니라 각 기공사회 지역 회를 통해서도 세미나가 개최되어, 각 지역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전국 투어를 통해서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 Bellabond plus(BEGO)가 사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며,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을 실제 작업할 때 주의점 및 트러블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신흥은 앞으로도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 One-day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베릴룸 프리 포세린 메탈에 대한 이해 및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미나 및 제품 문의: 02- 6366- 2187

덴탈비타민, 2011 Best of Best 상품 선정 TOP 5 온라인 투표 참여시 치과로 피자가 배달된다~

'Real Benefit for Dental Family'란 슬로건으로 치과계 다양한 혜택과 유용한 정보를 서비스해 오고 있는 '덴탈비타민(www.dentalvitamin.com)'이 2011년 Best of Best 상품 3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덴탈비타민 Best of Best는 2011년 한 해 동안 세미나, 신상품, 제품 프로모션, 도서 등 치과에 유용한 정보를 메

일링 서비스 해오면서, 고객의 상품 클릭률, 추천수, 이벤트 참여도 등을 분석하여 엄선한 올해의 Best of Best 상품이다.

덴탈비타민은 Best of Best 30 상품 발표뿐 아니라 30개 품목 중 TOP 5를 고객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더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특히 TOP 5투표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과로 피자를 배달해주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더 많은 고객의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고객 투표로 선정된 히트 상품만 한데 모아 오는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단 2주간 덴탈비타민 Best of Best 스페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으로, 올 한 해 마지막 Big Event가



될 전망이다.

덴탈비타민은 메일링, 홈페이지, 전시회를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치과계 Real Benefit 서비스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면 무도회를 다녀와서



선후배, 동기들과 멋진 화합의 장...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11월 11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문화의 밤_가면무도회” 행사날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행사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 저로서는 많은 참석인원에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해 “문화의 밤”은 제가 여성회에 가입해서 맡게 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여성회 임원들이 일하는 와중에도 밤늦게 만나서 회의하고 물품 준비와 제작, 개회식 때의 사소한 동선체크까지 우리 여성회의 정성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가 3시간 만에 끝나버리니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저는 행사 동안에 틀게 될 여성회 홍보 동영상 제작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날 기계적인 문제로 열심히 작업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결혼 준비로 바빠신 와중에도 동영상을 제작 해주신 이보현 기사님께 매우 미안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동안 수고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멘토링 경매쇼’였을 것입니다. 학술제에서나 치과기보로만 보던 선배님들을 경매를 통해 자신의 멘토로 사기 위해 경쟁하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멀게만 느껴지던 선배님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면 무도회’ 시간에는 어색해 할 것 같던 일반 남녀회원 분들이 매우 즐거워하시면서 곧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스윙댄스를 배워온 여성회 임원들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행사를 통해 우리 치과기공사들에게 이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거듭될수록 선후배, 동기들 간에 화합과 단결은 더욱 좋아지고 치과기공사인으로서 긍지도 높아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과기공사가 이룬 저녁, 행사에 참여한다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복지는 계속 좋아질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여성회는 앞장서 보일 것입니다. 내년, 내 후년에도 “문화의 밤” 행사는 개최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의 밤”이 더 많은 치과기공사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여성치과기공사회 강월 공보이사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밀레니엄!! 뽀빠로 데이날 한강 ON레스토랑에서 여성회 주최로한 가면무도회 & 멘토링 경매 행사에 참석하고 왔다.

금요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줄 예상했었는데, 여성회가 열심히 홍보를 한 덕분에 참석인원이 정말 많았다.

조금 일찍 서두른 덕에 미리 도착한 우리 일행은 한강쪽을 향한 야외에 잠시 나가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이수연 전국 여성회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가면무도회와 멘토링 경매였는데, 멘토링 경매에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멘티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볼 수 있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을 발전시켜서 멘티가 아닌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의 자리에 설수 있기를 지금 기공을 시작한 새내기 기공인들과 우리들 모두가 소망하길 기대해 본다.

식사가 끝나고 행사장 주위를 정리한 후 기다리던 가면무도회 시간이 되었다. 우리들은 개인당 색색의 가면을 받았고 스윙댄스를 추가위해 준비를 했다. 남성 회원들이 바깥쪽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서서 안쪽에 보다 작은 원을 그리고 선 회원들을 바라보고 선 것이 스윙댄스의 시작이었다.

처음 파트너와 인사를 하고 손을 맞잡고 찼던 어색했던 동작들이 파트너가 바뀌고 또 다른 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점점 스윙댄스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을 무렵...

행사가 마칠 시간이 되어 우리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스윙댄스의 시간을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온 여성회 이수연 회장님과 임원분들 그리고 그밖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나은정 회원

2012년도 대한치과기공학회지(통권 제34권 제1호) 원고 모집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기공학회 학회지를 2009년부터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30일 발행 예정인 대한치과기공학회지 제33권 제4호에 게재할 치과기공 관련 학술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 및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는 연중 수시로 논문을 접수하고 있으며, 게재 순서는 접수순과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 ① 접수 기간 : 2012년 1월 31일(화)까지
- ② 제출 자격 : 대한치과기공학회 논문 투고 규정 참조 (협회 홈페이지 참조)
- ③ 논문 접수 내용 : 논문 게재신청서 1부 및 논문 원고 1부는 대한치과기공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④ 온라인 접수 안내 : 대한치과기공학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투고 논문 클릭 → 논문투고 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소속 분과학회(분과학회 제출인 경우에 한함) 및 교신저자 표기 :
소속 분과학회 : 분과 학회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우편번호
교 신 저 자 :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e-mail, 우편번호

원고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심사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제31권 제1호부터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 ⑥ 논문의 종류 : 대한치과기공학회 논문 투고 규정 참조 (협회 홈페이지 참조)
- ⑦ 기 고 규 정 : 대한치과기공학회 논문 투고 규정 참조 (협회 홈페이지 참조)
- ⑧ 문 의 처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02)2253-2800
대한치과기공학회 편집위원장 김지환 010-6270-0341
편집이사 권은자 010-8709-2804

대한치과기공학회 회장 이 규 선

참고) 협회의 대한치과기공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논문투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서류 및 일정 등을 필히 살펴봐 주시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증 카드발급 신청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생(相生)을 위한 공정(公定)한 치과계 만들기



신중우
공학박사
신흥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attacatments@hanmail.net



최 근 이명박정부의 화두인 ‘공정사회’란? 출발은 물론 경쟁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한다. 즉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거나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불공정 관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선진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정사회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유례 없는 고도성장을 단기간에 이뤄냈지만, 반대로 성장에 매진한 나머지 사회 곳곳의 어두운 면을 지나쳐 온 것도 사실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 달러 시대 진입 등으로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선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도 실현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빨리빨리’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편법과 반칙, 결과지상주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소외감과 상대적 빈곤층이 늘어나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한 예로 단기간 압축성장으로 이루어 낸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성과 속에 공정사회라는 키워드는 아직 우리 현실에 그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상생(相生)을 위한 공정한 치과계 만들기”에 대해서 몇 자 적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도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또는 공정사회는 왜 필요한 것인가? 또는 공정한 치과계로 진일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만큼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물론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한 순간의 유행이라고 단정 지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더 나은 상생의 치과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치과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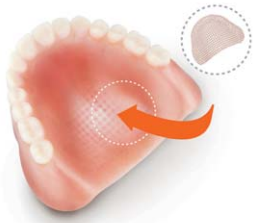
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절대 명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게임의 규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정해진 규칙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혹시 그 규칙이 누군가에 게만 유리하도록 수시로 바뀌고 있진 않은가? 공동체적인 삶과 미덕이 발현되는 사회를 꿈꾼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마도 공정사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과 공감대일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과계인들이 공정사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조금은 더 공정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두 번째로, 공정한 치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 “기공료 현실화”이다. 최근에 사회 전반에 걸쳐 근로 조건이나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치과기공계도 이러한 변화에 호응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4대보험 의무 가입이나 주 5일제 근무 거기에 기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치과기공소 운영에 어려움이 더 한층 가중되고 있다. 또한 만족도 높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working time이 절대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현실은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려움(시간과 인력의 필요)에 직면되어 있는 실정이다. 치과기공소장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기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공소 경영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기공료의 현실화가 받침대가 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공료는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과기공사인 우리 회원들도 생존만을 위한 우물 안에 개구리 격인 불공정거래(텀핑)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공정거래(텀핑)행위는 부메랑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시 되돌아와 더욱 기공계 현실을 어렵게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모두의 상생(相生)을 위해 작금의 어려움에 이해와 공감으로 해결의 실타레인 기공료 현실화를 풀기 위해 접근하여 고민할 때 진일보한 치과계의 공정사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신제품

SES fiber framework system



의 치 상의 구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재인 SES fiber framework system은 휘어지기는 해도 여간해서는 부러지지 않은 대나무 성질(장대나 낚시대)인 섬유성 특성으로 metal framework 대신으로 임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의치상을 더욱 강하고, 더 얇고, 가볍고, 심미적이고, 단시간에 조작할 수 있고,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생물학적 적합성을 제공한다. 이번에 새로 나온 SES FIBER SYSTEM은 기존 보철물의 Metal framework 제조시 필요한 아가, 매물, wax, Casting 등 7가지 이상의 공정을

없애고, AUTO 압착, curing 등의 공정만으로 가볍고 강한 Framework를 제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특히, SES FIBER SYSTEM은 MESH 압착 시, AUTO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간단하게 프레임워크를 제작할 수 있으며, 핑크색상으로 좀더 자연스러운 FRAMEWORK를 제공한다. MESH격자부분이 막히거나 하는 번거러움이 없고, 단 4분의 CURING 만으로도 강한 강도를 자랑한다.

기존 Metal 작업에 대체하여 본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여러 복잡한 공정을 단축 시키므로 기공물 제작 소요시간이 짧고, 주조공정 시 나오는 유해물질 걱정이 없는 친환경 제품이며, 또한 환자에게는 가볍고 편안한 덴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문의 및 판매원 : (주)그린비앤디 02-795-0013



GRADIA / GRADIA GUM 광중합형 고강도 MFR 하이브리드 Composite Resin

치과계의 대표 기업인 GC

에서 새롭게 광중합형 고강도 MFR 하이브리드 Composite Resin인 GC Gradia와 Gradia GUM이 출시되었다. GC Gradia와 Gradia GUM은 유럽등 해외에서 뛰어난 색조 표현력과 물성을 인정받아 이미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품이다.

GC Gradia는 기존 세라믹 시스템과 견줄만한 우수한 색조 구성과 표현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심미보철 증례에 적용할 수 있다. 뛰어난 물성을 자랑하는 Gradia는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을 바탕으로 대합치와 부드러운 교합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유동성과 조작성으로 빌드-업 작업이 용이하다. 특히, 오펙 색조는 기존 세라믹

제품과 같은 페이스트 타입으로 나와 보다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치은 재현 시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치은 재현이 가능한 GC Gradia GUM은 기존 타사제품과 다르게 18가지 다양한 GUM색조로 구성되었다. 이는 덴처 및 임플란트 상부구조물의 치은재현 시 매우 뛰어난 심미성으로 차원이 다른 기공테크닉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심미보철을 지향하는 많은 치과기공사에 게 GC Gradia와 Gradia GUM 출시로 심미보철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 제조원 : GC CORPORATION (일본)

■ 수입원 : (주)자-씨코리아

■ 판매원 : 플러스 덴 / 문의처 : 02-3183-1271

칼럼



장한일

논설위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齒藝人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년(年前)에 우리의 치과기공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경사인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의 학술활동과 학술연구 기반을 지원하며, 연구인력의 양성을 통해 학문 전반의 연구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준정부기관임을 우리 회원들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리라.

심사가 까다롭고 대외적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연구재단에 우리의 기공학회지가 등재되었다는 것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단들의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학구적 노력의 결과라 여겨진다. 보태어 역대 기공학회장과 편집진의 열성과 헌신적인 봉사의 산물이 아닐까.

의료의 한 축인 섬세한 치기공분야가 학문적인 기준의 평가로 인정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에는 것은 전 치예인의 경사요 자부심이다.

이와는 반대로 십여년 전만해도 대단한 인기직종이던 치기공분야가 이제는 고사위기에 처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힘없는 단체에다 단결력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세력화된 대학당국의 과잉배출이 중요원인이자 싶다.

손끝기술의 정수(精髓)라 일컫는 금형엔지니어링 복합기술을 중소기업이 수 십년동안 피 땀흘려 세계5위

금형국가로 키워놓은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분야인 금형기술을 삼성전자 엘지 전자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금형시장을 잠식 고사시키려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계 상위그룹에 있는 우리의 치과기공기술도 언제 어떻게 도전을 받을지 모르는 처지를 전 기공인은 직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봐야 한다. 얼마전 치과분야 시행령 개정안에 위생사에게 jaket와 resintray 제작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위험한 발상을 우리 회원들은 업권 침해이므로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2012년도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을 살펴보자.

정부의 서민복지차원의 보험실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정책입안자와 치과의사회 치과기공사회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노인틀니의 특성상 작업시간률을 적용해 수가를 배분해야 한다.

셋째: 보험수거중 기공물제작수가분은 선진국처럼 치과기공소에 직접수령이 되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하리라 본다. 위의 2~3항이 법률적

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공사들 입장에서 틀니제작이 불가능할뿐더러 허기져 가면서까지 정부안에 협조할 수 없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꿈과理想은 모든 이의 희망이요 미래지만 그것을 현실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는 전 치과기공인의 숙제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생공존의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배경에 깔고 있음이 우리나라 憲法의 기본정신이다.

却說하고, 치과계의 한 축인 기공계를 언제까지나 서자(庶子)취급을 할런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고 대학당국의 무관심과 전국의 치기공과 교수들에게도 묻고 싶다.

교수들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공술을 세계적 위치로 발돋움한 공로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으로는 큰 봉우리를 마련했다하나 현장의 실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괴리를 어떻게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한국사회가 기득권층들이 학문을 앞세워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활상단층이 지진으로 폭발하여 쓰나미로 변하여 공동체를 허물어 버릴 것이다.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가 국정을 농간하는 한국적 병리현상에 학교와 대한치과기공사회협회가 어떻게 융합하여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밝고 건전한 치과기공계를 위하여 소통과 통섭에 앞장서고 뼈를 깎는 각오로 치예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미래가 보일 것이다.

노무상식

치과기공소에서 올바른 인사권의 행사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기공소에서 해고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소규모의 기공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올바른 인사권 행사요령 중 징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징계의 의의

징계란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근로제도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업질서문란, 불성실 근로로 인한 경영상 장애발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권의 법적성격

인사권은 사용자(기공소)의 고유권한이며, 징계권 역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범위에 속하는 권한으로서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3. 징계권의 제한과 사용자의 재량

징계권은 사용자의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지만 사용자의 징계권행사에 대하여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해고 등 징벌사유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의 사유·양정·절차·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징벌이 사회통념상 평가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등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취업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공소에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절차 등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부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공소에 적용되나, 5인 이상의 기공소에서도 이를 갖추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에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기공소에서 징계권의 행사와 절차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공소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위반행위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반행위의 경중과 다른 근로자의 동일한 경우에 비추어 형평성을 고려한 후 최종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 기공소에서는 징계기간중 임금상당액지급을 비롯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공소에서는 인사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e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동희 02)408-4050)

치기공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실태 분석



현중구

-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 전 한국치기공과교수협의회 회장
- 전 한국치기공교육연구회 회장

I. 서론

1) 치기공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

치기공 관련 전문대학(교)을 졸업한 자에게 현장실무와 연계된 직업적 전공심화 치기공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전공심화과정의 치기공학 교육이수자에게 치기공학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2007.7.13공포」치기공학 학사학위를 총장(혹은 학장) 명의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치기공학 학사학위→대학원 진학(본인의 희망)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학자격

전문대학 3년제 졸업자(120학점 이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1년 과정에 입학하여 학위를 받아야 한다. 입학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 한한다.

- 전문대학(교) 입학 후 재학 중 치기공 관련 직무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교)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치기공 관련 직무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

3) 전공심화과정의 교육목적

- 대학수준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1년 이내에 전공심화과정에서 직무능력 향상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욕구 충족의 기회보장
-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 함
-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 함(「고등교육법」(2007.7.13 공포))
- 치기공산업체 변화의 수요에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인력육성
- 치기공산업체의 현장실무사례를 공유하여 문제 해결의 실무교육
- 글로벌시대에 국제화하고 있는 치기공산업체의 해외사례 연구교육
- 전문대학 졸업 후 계속교육을 통하여 치기공학술 및 직무능력 향상에 있다.

한편 치기공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대학원 진학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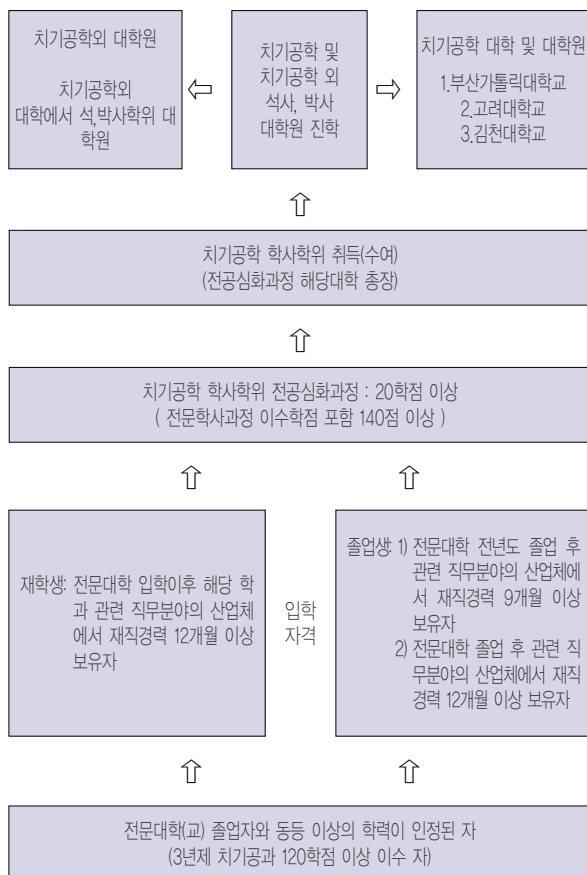


그림 1. 치기공학 전공심화 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진학 흐름도

II. 본문

치기공학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각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 그리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대학 정원 및 재학생 현황표

대전보건대학(교)과 신흥대학(교)은 2008년도에 치기공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광양보건대학(교)은 2009년도에 그리고 광주보건대학(교)은 2010년도에 각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동남보건대학교는 2011년도에 개설, 인가 되었다.

2011년도에는 전국에서 입학정원 100명에 74명이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으며, 총 졸업생수는 167명이며 모는 졸업생이 4년제 학사학위인 “치기공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표 -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대학 입학정원 및 총 과정생 현황표

순위	대 학	교육 요일	입학 정원	과정생 수 (졸업생+재학생)	설립년도	지역
1	대전보건대학교	월,수	30명	65명	2008년	대 전 시
2	신흥대학교	월,토	30명	120명	2008년	경 기 도
3	광양보건대학교	토,일	20명	16명	2009년	전라남도
4	광주보건대학교	일	20명	40명	2010년	광 주 시
5	동남보건대학교	미정	30명	0명	2011년	경 기 도
	합 계		130명	241명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각 대학 교육과정

1) 대전보건대학교

(1) 교육과정

■표 - 2■ 2011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표

교 육 과 정			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수	학점	이론	실습	학점	이론	실습
교양 과목	필수	심리학	2	2				2	2	
		영어강독	2	2	2	2				
		최신 디지털영상학	3	3	3	1	2			
		미래비전 1,2	P	2	P	1		P	1	
	소 계		7	8	5	4	2	2	3	
	선택	생명공학의 이해	2	2				2	2	
전공 과목	소 계		2	2				2	2	
	필수	응용 매체의치기공학 및 실습	3	3	3	1	2			
		CAD 실제 활용 및 실습	3	3	3	1	2			
		응용 교합기공학 및 실습	3	3				3	1	2
		응용 심미치과 기공학 및 실습	3	3				3	1	2
		연구방법론	2	2				2	2	
	소 계		14	14	6	2	4	8	4	4
	선택	노인보철기공학	2	2	2	2				
	소 계		2	2	2	2				
	합 계		25	27	13	8	6	12	9	4

* 교육과정표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양과목에서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이 있으며, 전공과목에서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하여 총 25학점에 27시간으로 20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된다.

(3) 교육하는 요일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의 2일간 수업을 하며, 야간 교육과정으로 한다.

(4) 전공심화교육 안내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042) 670-918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신흥대학교 교육과정표

(1) 교육과정

※ 표 - 3 참조

(2)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양과목 선택과 전공필수와 선택으로 하여 총 32학점에 41시간으로 20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한다.

(3) 교육하는 요일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의 2일간 수업을 하며, 야간 교육과정으로 한다.

■표 - 3■ 2011학년도 신흥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표

교 육 과 정			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수	학점	이론	시수	학점	이론	시수
교양 과목	선택	스트레스 해소법	2	2				2	2	
		소 계	2	2				2	2	
전공 과목	선택	임상 치과 기공사진학	2	2	2	2				
		임상 치기공 세미나	2	2	2	2				
		구강 병리학	2	2	2	2				
		응용 치과도재학 및 실습	2	3	2	1	2			
		특수보철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응용 매식의치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선택	기공소 경영 & 인생설계	2	2	2	2				
		응용 총의치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자연치아 형태학 및 실습	2	3				2	1	2
		전부도재학 및 실습	2	3				2	1	2
		응용 국부의치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치과디지털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응용 관교의치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응용 관교의치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응용 치과재료학	2	2				2	2	
		교합안전장치	2	2				2	2	
		소 계	30	39	14	11	6	16	10	12
		합 계	32	41	14	11	6	18	12	12

* 교육과정표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전공심화교육 안내
신흥대학교 치기공학과 031) 870-342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광양보건대학교

(1) 교육과정

■표 - 4■ 2011학년도 광양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표

교 육 과 정			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수	학점	이론	시수	학점	이론	시수
교양 과목	선택	경영학	2	2	2	2				
		재료화학	2	2				2	2	
		소 계	4	4	2	2		2	2	
전공 과목	필수	응용 관교의치기공학 및 실습	3	4	3	2	2			
		응용 국부의치기공학 및 실습	3	4	3	2	2			
		응용 치과재료학 및 실습	3	4	3	2	2			
		응용 치과도재기공학 및 실습	3	4				3	2	2
		응용 총의치기 공학 및 실습	3	4				3	2	2
	선택	소 계	15	20	9	6	6	6	4	4
		치과기기 및 수리	3	3	3	3				
		의치의 설계	3	4				3	2	2
		심미보철학 및 실습	3	4				3	2	2
		소 계	9	11	3	3		6	4	4
		합 계	28	35	14	11	6	14	10	8

* 교육과정표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양필수, 전공필수 와 선택으로 하며 총 28학점에 35시간으로 하여 20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한다.

(3) 교육하는 요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의 2일간 수업을 하며, 주말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4) 전공심화교육 안내
광양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061) 760-1516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 광주보건대학교

(1) 교육과정

■표 - 5■ 2011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표

교 육 과 정			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수	학점	이론	시수	학점	이론	시수
전공 과목	전공필수	임상 모형 분석	3	3	3	3				
		응용 총의치 기공학	3	3	3	3				
		응용 국부의치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임시 보철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심미 보철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응용 치과도재 기공학	3	3				3	3	
		응용 관교의치 기공학	3	3				3	3	
		응용 교합학 및 실습	2	3				2	1	2
		소 계	20	24	10	8	4	10	8	4
		합 계	20	24	10	8	4	10	8	4

* 교육과정표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전공필수로 되어 있다. 총 20학점에 24시간으로 하며 20학점으로 이수하게 한다.

(3) 교육하는 요일
매주 일요일의 1일간 수업을 하며, 오전부터 야간까지 교육과정으로 한다.

(4) 전공심화교육 안내
광주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062) 958-7693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 동남보건대학교

(1) 교육과정

■표 - 6■ 2012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표

교 육 과 정			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수	학점	이론	시수	학점	이론	시수
전공 과목	전공필수	응용고정성치과 보철기공학 및 실습	3	4	3	2	2			
		응용치과교합 기공학 및 실습	3	4	3	2	2			
		치과디지털 기공학 및 실습	2	3	2	1	2			
		임상치과기공사 진학	2	2	2	2				
		응용가철성치과 보철기공학 및 실습	3	4				3	2	2
		응용매식의치기 공학 및 실습	3	4				3	2	2
		응용치과교정기 공학 및 실습	2	3				2	1	2
		임상세미나	2	2				2	2	
		소 계	20	26	10	7	6	10	7	6
		합 계	20	26	10	7	6	10	7	6

* 교육과정표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전공필수로 되어 있다. 총 20학점에 26시간으로 하며 20학점으로 이수하게 한다.

(3) 교육하는 요일
수업요일은 현재 미정이며, 야간에서 교육과정으로 한다.

(4) 전공심화교육 안내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031) 249-649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III. 결론

치기공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교육과정은 전문대학(교)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 활성화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기술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하는 과정이다. 이는 “전문대학(교)졸업→취업(1년(재학생) 또는 9개월(졸업생) 이상)→전공심화과정 이수→학사 학위 취득→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진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특징은 전문대학 입학 후 재직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 전년도 졸업 후 9개월 이상이기에 대부분 ‘성인 재직자’ 학생으로 구성 되며, 전문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직접 현장에 근무하면서 겪은 문제들을 이론과 접목하여 심화된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학생으로 구성 되어지고 있다.

한편 치기공학의 심화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직무능력을 발전시키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하는 학생으로 구성 되기에 직장 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서 전공심화과정 학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치기공학의 많은 발전을 바탕으로 직업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학사학위 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치기공학 학사학위심화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 사료된다.

IV. 참고문헌

- 1. 2012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
-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1항~제3항
- 4. 광양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안내
- 5. 광주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안내
- 6. 대전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안내
- 7. 동남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안내
- 8. 신흥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안내
- 9. 학사학전공심화과정 운영회
- 10. www.ghc.ac.kr
- 11. www.hit.ac.kr
- 12. www.kwangyang.ac.kr
- 13. www.mest.go.kr
- 14. www.shc.ac.kr

■ 학술 1

주조의 시대를 넘어...

Chapter2

내부스테인을 이용한 전치부 심미보철(지르코니아)제작의 팁!



charm the nature dental studio 박병운

김천대 졸업

대한캐드캠기공학회 공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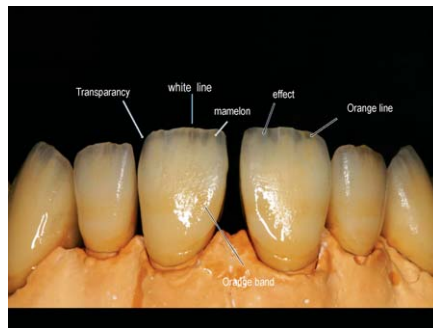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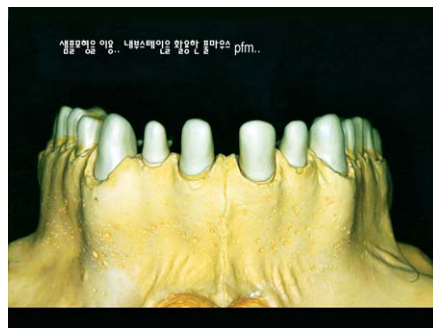
canada alberta D.T

현 cham the nature dental studio

심미보철...?

필자가 생각하는 심미보철은 동일한 위치에 자연치가 즉 동명치가 존재하는 편측성 심미보철(esthetic)과 오로지 치아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양측성 심미보철(cosmetic)로 나뉘어 진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양측성 심미보철제작시 그 기준을 인접치나 대합치를 삼는게 아니라 좀더 밝고 고른 배열과 그특징이 두드러지지않는 텍스처를 선호하기때문에 내부스테인의 사용빈도는 극히 제한적이라 하겠지만 편측성 심미보철 제작시 그 필요성은 필자에게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스테인의 임상적 활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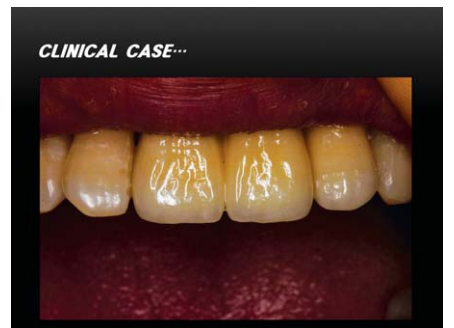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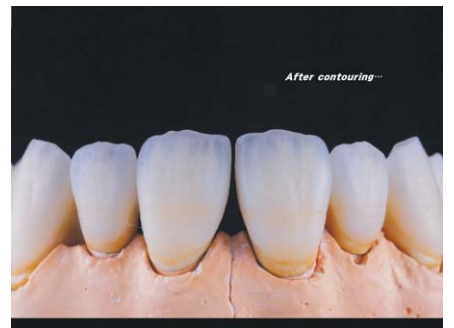
- . 명도, 채도, 색상의 보정
- . 투명도 보정
- . 캐릭터 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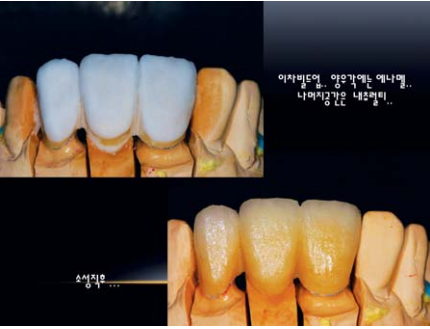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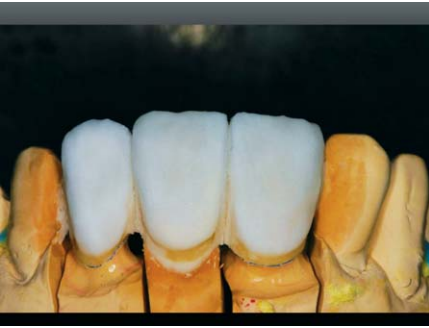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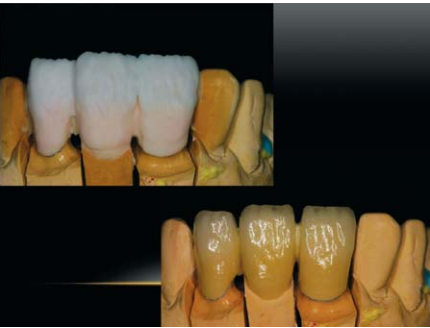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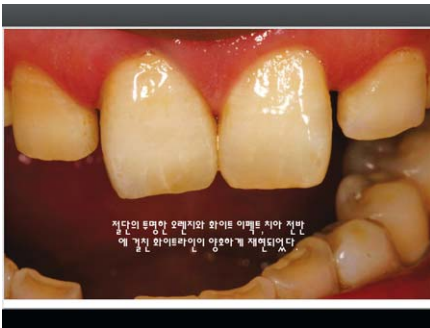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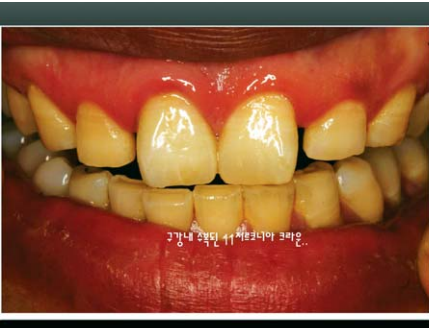
*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테인은 창조가 아니라 보정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즉! 베이스가 되는 일차 빌드업된 크라운의 모자라거나 넘치는 부분을 채워주거나 억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 내용이 알맞다 하겠다.

필자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과 농도조절용 파우더.



스테인은 앰프레스 스테인 농도조절용 파우더는 노리다케 내부스테인 킷에 포함되어있는 bright 파우더.. 현재 이시스템으로 적용해본봐 노리다케, 빈테이지 할로, 디자인, 아마모토, 이펙스파우더에서 문제없는 완벽한 호환성을 확인했다.





1장 이노븀 포세린과 2장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심미보철수복까지..
연제를 마치면서.. 급변하는 캐드캠시장과 곧이어 다가올 rp머신을 이용한기
공 인트로 오랄스캐너와 맞물려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에 대해 이제
는 진지하게 고려해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무작정 역대의 투자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실
효성차원에 서 대자본을 갖지않는 이상 그 투자대비효과는 크지않다는 것이 확
인된바 있다.
결론으로 일반적인 기공소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은 스캐너로 직접디자인후 동
일 센터로 크라운을 의뢰하는 방식이 그것의 답 중에 하나가 아닐것인가 라고 필
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규모 기공소의 경쟁력은 어떻게 갖추어야 할것인가? 일장에서 애
기했듯이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아날로그 기공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그것을 실
현할수있는 스킬이 기본되지 않는다면 도구가 조각도에서 마우스로 바뀌었다고
그 기본은 바뀌지 않는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조각도든 마우스든 어차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사람의 손에서 귀결되기 때문이다.
현 기공계에 불어닥치고있는 수많은 문제때문인지 올 겨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연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원여러분들
께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바가 쉽게 전달될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것 같습
니다. 어지됐든 다가오는 2012년에는 좋은일들만 가득하기를 빌어보며 연재를
마칠까 합니다.

■ 학술 2

총의치(Complete/Full Denture) 제작과정 이해하기

- 2부 -



신종우

공학박사, 신홍대학 치기공과 교수
attacatments@hanmail.net

I. 서론

총의치 제작과정은 primary part인 납의치 제작과정과 2ndary part인 수지의치 전 제작과정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그 중 primary part인 납의치 제작과정은 전 호에 게재하였고 본 호에서는 2ndary part인 수지의치 전 제작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지의치 제작과정은 여러 가지 중합법(가압 성형법, 사출 성형법, 유입 성형법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호에서는 가압 성형법을 이용한 수지의치 제작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그림 1).



그림 1 총의치 보철

II. 본론

1) 매몰 전 준비

구강 내에 납의치 시적 후 교합이나 안모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납의치를 수지의치 제작과정으로 진행하여 환자에게 만족도 높은 총의치 보철물을 제공한다. 수지의치 제작과정 중 첫번째로 납의치를 주모형에 정확하게 적합시킨 상태에서 변연부를 봉합시키고 교합기에 재장착하여 교합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그리고 교합기의 mounting stone으로부터 납의치가 부착된 주모형을 조심스럽게 분리한다(그림 2).



그림 2 Mounting stone으로부터 주모형 분리

2) 납의치의 매몰(Flasking)

납의치의 매몰이란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형성이 끝나면 임시의치상인 납의치를 영구의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공과정을 말한다. 시적이 끝난 납의치의 의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납의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의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 수 있도록 음형(mold)을 만들어 준다(그림 3, 4).



그림 3 납의치 매몰 준비



그림 4 납의치 물에 침수 중 flask 내부에 바셀린 도포

3) 1단계 flasking

가압 성형법을 이용한 납의치의 매몰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중합 후 의치의 취출(deflasking)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1단계 매몰은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에 반쯤 채운 다음 납의치 모형을 flask 중앙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가볍게 눌러 주면서 납의치가 부착된 모형의 ledge가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이때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spatula로 걷어내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어 준다(그림 5). 특히, 1단계 매몰과정에서는 undercut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상함과 잘 분리가 된다.



그림 5 1단계 flasking

4) 2단계 flasking

하함의 보통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경석고 매몰재 표면에 도포하고 건조시킨다. 분리제 건조 후 보통석고를 상함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합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한다. 이때 인공치의 교합면에 묻은 보통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구치부위의 교합면과 전치부위의 절단부를 노출시킨다(그림 6).



그림 6 2단계 flasking

5) 3단계 flasking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하게 채운 다음 flask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의 구멍으로 넘쳐 나오게 한다.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 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여 함을 clamp에 넣고 경석고의 팽창을 막고 함이 metal to metal contact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할 때까지 clamp나 press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둔다(그림 7).



그림 7 3단계 flasking

6) 왁스 제거(Boil-out wax) 및 분리제 도포

매몰이 끝나면 왁스를 제거하여 수지를 전입할 수 있는 음형체를 만들어 준 다음 수지와 왁스의 분리용이를 위하여 레진 분리재를 도포한다(그림 8, 9). 매몰한 석고가 경화되면 flask를 열탕 속에 몇 분 동안 담그기 두어 왁스가 연화되도록 한 다음 flask의 상함과 하함을 분리하여 기초상을 제거하고 잔류 파라핀 왁스를 완전하게 끓는 물로 세정한다.



그림 8 합 연화 후 분리와 왁스 세팅



그림 9 레진 분리제 도포

7) 수지의 혼합 및 전입

왁스가 제거된 음형에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취향 등을 고려하여 치은의 색조와 유사하도록 수지를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그림 10, 11, 12).



그림 10 수지 계량 후 혼합



그림 11 Mold에 수지 전입 후 시압



그림 12 과잉의 수지 제거

8) 수지 중합 후 의치 취출

수지의 전입이 끝나면 합 속에 전입된 수지 혼합물을 중합시켜 견고한 의치상으로 만들어 준 다음 냉각 후 flask를 분리하고 중합된 의치와 모형을 둘러싸고 있는 매몰재를 제거한다(그림 13, 14).



그림 13 중합 후 함에서 분리



그림 14 매몰재 제거

9) 교합기 재부착 및 선택삭제

의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교합의 부조화를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15, 16). Remount된 상하 의치의 교합면간에 교합지를 끼우고 교합기를 닫으면 조기 접촉부는 착색하고 교합접촉이 없는



그림 15 선택삭제

곳은 착색되지 않는다. 선택삭제는 먼저 중심위관계의 교합조정을 시행하고 나머지 작업측의 교합조정을 진행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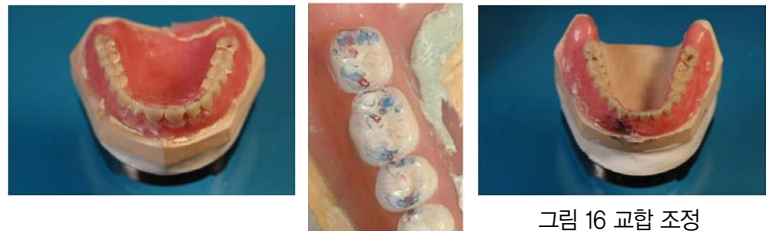


그림 16 교합 조정

10) 중합 의치상 분리 및 다듬질과 연마

선택삭제를 끝내고 중합 의치로부터 모형을 제거한 다음 의치를 구강 안에 장착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형태로 다듬어주고 표면에 광택을 내준다(그림 17, 18, 19).



그림 17 연마기구를 이용한 의치의 다듬질과정



그림 18 Purmice를 이용한 연마과정



그림 19 수중에 보관

11) 의치 장착 후 관리

최종적으로 제작된 완성 의치를 구강 내에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20). 의치를 환자 구강 안에 장착 시켜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 지는데 장착 후에 의치 교합면이나 조직면 등의 수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치과의사는 장착된 의치의 경과관찰을 통한 의치의 평가와 조정(수정) 그리고 의치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 환자를 정기적으로 내원 시켜야 한다.



그림 20 구강 내에 장착된 상하 총의치

III. 결론

총의치 보철학의 최종목표를 말한다면 저작, 발음 및 심미의 기능 회복을 통해 무치악 환자의 구강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총의치 장착 환자는 반드시 명확하게 발음을 해야 하고 장착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그림 21).



그림 21 기능성과 심미성으로 제작된 총의치 보철

IV. 참고문헌

- 신종우, 치과기공학 개론, 참운퍼블리싱, 2003
- 최신 총의치기공학, 고문사, 2008

대한지과기공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dtech.or.kr> 홈페이지 클릭을 생활화 합니다